

2022년 여름호 vol.167

이화 창립 136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
2022 '영원한 이화인' '올해의 이화인' 추대
이화 창립 136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

이화 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이화 사랑의 힘,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로 보여 주세요

24만 이화 동창 여러분, 동창들의 따뜻한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총동창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모교 발전을 돋고, 이화 동창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들께서 보내 주신 연회비와 평생회비는 총동창회 사업에 큰 힘이 되며 장학 사업, 회보 제작, 모교 발전 기부금 등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화에서 뜨거운 젊은 시절을 보냈고, 평생 베풀어야 될 교육을 이화에서 받았습니다. 이화가 우리를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화에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화 동창 여러분! 회비 납부를 통해 24만 이화 동창의 저력과 모교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총동창회는 이화 동창의 따뜻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황규호

동창들이 총동창회를 후원하는 방법은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화동창 연회비**’는 《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나 총동창회 계좌를 통해 해마다 한 번씩 납부하면 됩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는 평생 한 번만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해마다 ‘이화동창 연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지로용지를 찾아 헤매는 불편이나, 은행에 이체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연회비는 면제됩니다.

■ 이화동창 평생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0만 원–2022년 기준 만 60세 이상
(1984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 원–2022년 기준 만 60세 미만
(1985년 이후 졸업 동창)

평생 한 번 납부, 평생회비 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 이화동창 연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만 원–1년에 한 번 납부

■ 납부 방법

지로 입금–《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계좌 이체–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 : 남상택 이대총동창회)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예:김이화영문80)

■ 문의

총동창회 사무실 전화: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



표지사진
황규호(보교 교육학과 교수)
ECC 동산과 본관(2018)

편집위원

남상백(물리 74, 총동창회장)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 부회장)
조미숙(식영 83, 총동창회 부회장)
한미경(물리 88, 총동창회 총무)
정진숙(행정 89, 총동창회 흥보부장)
김미령(커미부 68, 편집위원)
이영희(사학 88, 편집위원)
최지영(사학 89, 편집위원)
허윤선(정외 89, 편집위원)

발행 2022년 7월 10일 발행
발행인 남상백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삼성교育문화관 8층)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편집 문화정원

인쇄 제이오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22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02 이화 동창과 드리는 한마음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03 이화 창립 136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

올해 첫 '영원한 이화인' 추대, 대면 행사로 열린
기념식장엔 활기 넘쳐

10 이화 창립 136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

이화와 민족과 세계에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12 2022 영원한 이화인

박현숙 동창 등 22인

14 2022 올해의 이화인

황현선 동창 등 44인

17 2022 총동창회 후원이사 초청 오찬회

모교의 성장에 기댈 언덕이 되고 힘이 되어 주는
이화동창에게 감사를

18 이화의 기도처 순례 / 이대서울병원 내 방주교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라

20 만나고 싶었습니다 / 대안학교 '서머힐'을 한국 최초로 연구·소개한 김은산 동창 '우리나라 교육이 나의 선교지'라는 사명으로

24 각 과,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외 지회장 초청 간담회

세계 각지에서 100여 명 동창이
글로벌 화상회의에 참석해

28 축하합니다 지은희 동창 외

29 빛나는 이화인 / (사회)희망의방고나무 & '이광희 부티크' 대표 이광희 동창 '하나님 사랑' 실천하는 '마마리'의 삶에는 마침표가 없다

32 빛나는 이화인 / 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동창 학자로서 플랫폼 역할을 하며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다

36 선교지에서 온 편지

참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38 총동창회 소식

2022 '영원한 이화인'·'올해의 이화인' 추대 발대식 외

40 선교부 소식

아이티 삼자병 어린이들과 함께한 천국 같은 한 달

43 모교 소식

이화·창립 136주년 기념식 개최 외

49 대학(원) 소식 자연과학대학 외

53 과(학)부 소식 불어불문학과 외

59 지회 소식 멤버른 지회 외

63 동창 근황 한진수·천동옥 동창 외



03



10



12



14



17



18



20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시 90:1)

사랑하는 하나님,
모교 '이화'의 136세 생일을 맞아
참으로 오랜만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설렘으로
동창 선후배들이 '이화'의 교정에 걸음하여
'이화'에 가득한 당신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화답하고
피차 축하하고 축복하며 즐거운 만남 갖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면면을 세밀히 만지심으로
'이화'를 시작하시고 '이화'가 '이화' 되도록 이끄시어
지금까지 당신의 것으로 채우시며 보살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과 더불어 마음껏 춤추는 하늘 잔치로 펼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굽이굽이 우여곡절을 지나 마디의 삶을 살아내면서
바람 자락에 머리카락이 그리 하얗게 날리어도
예전과 변함이 없노라고 미소 지으며 덕담을 나누는 동창들의 환호로
모교 '이화' 곳곳에 기쁨의 소리가 깊은 울림으로 넘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조심스레 잡아드린 손 단호히 뿌리치시고 구부러져 가는 허리를 곧추세우시며
'대강당' 돌계단을 밟아 당당히 오르시는 노 선배님들의 멋진 뒷모습에
마음 한켠 울컥하여 한동안 머물러 서서 추스르면서… 이 한 분, 한 분이
모교 '이화'의 찰나이며 잇대어 온 역사임을 바라보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간구하옵기는,
'이화'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동창 선후배들 안에 새로이 담아주시고
모교 '이화'를 이어갈 새벽이슬 같은 '이화'의 청년들을 품어 마음 모으게 하시되
이 땅 한 귀퉁이에 가장 작은 씨앗으로 심겨졌으나 모든 풀보다 크게 자라
온갖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로 장성케 하신 은총을 감사하면서
그 높이신 곳에서 겹히 낮은 곳, 어두운 곳에 손 내밀어 두루 아우르면서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에 연대하며
온 땅 위에 그 줄기줄기 뻗어 영원을 향한 생명의 길 힘써 나아가도록
모교 '이화' 위에 늘 운행하시고 친히 가르치시며 인도하시옵소서…

이 땅과 온 땅 위에 오로지 한 분이시며 '이화'의 거처 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글·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 부회장)



이화여자대학교 창립136주년 기념 동창의 날

일시 : 2022년 5월 31일(화) 오후 2시 장소 : 대강당 주최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동창의 날 영원한 이화인 올해의 이화인



이화 창립 136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

올해 첫 '영원한 이화인' 추대 대면 행사로 열린 기념식장엔 활기 넘쳐

이화 창립 136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가 5월 31일(화) 오후 2시, 총동창회 주관으로 모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오랜만에 대면으로 치러진 행사이기도 해서 교정은 모교를 찾은 동창들로 북적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었어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시기임을 감안해 총장 초대 오찬과 합창제는 열리지 못했지만, 2년간 중단됐던 대규모 교내 행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900여 명의 동창이 모교를 찾아 푸르른 5월의 교정에서 재상봉을 축하하고 기쁨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남상택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

은미 모교 총장, 장상·신인령·이배용·김선옥·김혜숙 전 총장, 윤순희·김순영·조종남 전 고문, 이경숙·김영주 총동창회 고문 등 내빈과 졸업 50주년·30주년 재상봉 동창 및 이화 가족이 참석하였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동창을 위해서 총동창회는 이날 활용한 영상을 총동창회 유튜브 채널에 올려 다시 볼 수 있게 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온기를 나누는 이화인이 되길

사회를 맡은 한미경(물리 88) 총동창회 총무가 개회를 선언함과 동시에 힘찬 오르간 연주에 맞춰

졸업 30주년을 맞은 ‘올해의 이화인’들이 대강당 중앙 통로를 통해 무대로 입장하자, 참석자들은 대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며 환호했다. 성혜옥 (영문 70) 총동창회 선교부장은 기도를 통해 “이화의 생일을 맞아 아름다운 이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화에 이루어진 꿈을 전하며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눠 주는 리더들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렸다.

이어 단상에 오른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5월 라일락 향기가 가득한 교정에서 재학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며 동창들과 다시 만날 수 있어 더 없는 큰 축복”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오늘의 총동창회가 있기까지 모교 사랑의 깊은 뜻을 간직한 25만 이화 동창 여러분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고마움을 전하며 “거리 두기가 완화된 지금,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온기를 나눌 줄 아는 이화인이 되어, 다가올 일상을 소중하고 기쁘게 맞이하자”고 인사말을 맺었다.

이어 제7회 ‘빛나는 이화인’ 상 시상식이 있었다. ‘빛나는 이화인’ 상은 2016년에 총동창회가 제정해 사회 각 분야에서 이화 정신을 실천하며 공헌하고 있는 동창에게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이광희(국제사무 74, (사)희망의 망고나무 대표)·안수현(법학 90,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희진(컴공 05, (주)유라이크코리아 대표이사) 동창



남상택 총동창회장

김은미 모교 총장

이 선정되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순금으로 만든 이화 마크 메달을 증정했다.

이광희 동창은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에서 망고나무 묘목을 심어 자립 농업을 정착시키는 NGO 활동으로 현지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이광희 동창은 졸업 후 40여 년 동안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하다, 13년 전에 아프리카 남수단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망고나무를 심는 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 동창이 “이화 정신을 이어받아 현지에 자립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 한센인 마을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며 소감을 말하자, 후배인 국제사무학과 교수 5명이 무대에 올라와 꽃다발을 선사하였고,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존경하는 마음을 보냈다.

안수현 동창은 여성 최초의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으로, 기업·금융법제 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법학자로서 탁월한 학문적 성취를 인정받고 있다.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자 이광희·안수현·김희진 동창(왼쪽부터)



안 동창은 “사회에서 만난 이화의 선배들은 항상 반짝였고 에너지가 넘치고 추진력도 강해서 멋지다고 생각했다”며 선후배 덕분에 열심히 연구하고, 후학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안 동창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과 연구 성과를 나누라는 의미로 새기겠다”고 인사말을 맺었다.

김희진 동창은 국내 최초로 축우 바이오캡슐을 개발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7년에 농림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여성이 경험하기 어려운 축산 ICT(정보통신기술) 분야를 새롭게 개척한 김 동창은 “이화여대를 다니면서 체득한 DNA·기독교 정신과 도전 정신으로 지금까지 온 것 같다”며 세계적으로 이화를 알릴 수 있는 축산 ICT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아낌없는 박수로 수상자들을 격려하였다.

이어서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 중서 수여식이 있었다. 특별히 올해부터 총동창회는 졸업 50주년을 맞은 동창 가운데 진선미의 이화 정신을 실천하여 모범을 보인 동창들을 ‘영원한 이화인’으로 추대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22명의 ‘영원한 이화인’을 대표해서 임덕기(국문



곽인숙(졸업 50주년)·이혜경(졸업 30주년) 동창이 재상봉 동창을 대표해 인사했다(왼쪽부터)

- 72) 동창에게 ‘영원한 이화인’ 중서를 수여했고, 44명의 ‘올해의 이화인’을 대표하여 홍은영(커미부
92) 동창에게 ‘올해의 이화인’ 중서를 수여하였다.

이화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이기도 해

다음으로는 졸업 50주년(1972년 졸업)과 30주년(1992년 졸업) 재상봉 동창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졸업 50주년과 30주년 재상봉 동창을 대표하여 곽인숙(가관 72) 동창과 이혜경(통계 92) 동창에게 이화 마크 안에 숫자 50과 30이 표기된 기념품 목걸이를 목에 걸어 주며 정답게 인사를 나눴다. 총동창회는 졸업 50주년과 30주년 재상봉 동창들에게 모두 초대장을 발송했으며, 모교를 찾은 재상봉 동창은 이날 대강당 입구에서 나눠 주는 기념품 목

‘영원한 이화인’ 중서 전달식



‘올해의 이화인’ 중서 전달





2부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 추대식

걸어를 착용하고 행사에 참석하였다.

졸업 50주년 동창을 대표하여 연단에 오른 광인숙 동창은 “이화여대를 졸업해서 좋았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니 입학식에서 들었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아름다운 캠퍼스, 세계 곳곳에 있는 동창, 모교의 발전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68학번 동기들이 옆에 있다는 것이다”라고 회상하면서 “직장인이 전업주부 건 상관없이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당당하게 살아온 친구들과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당한 여성으로 자유롭게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삶을 열어 주신 은사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최근 타계한 고 이병림·이어령·서광선 명예교수에게 애도의 마음과 감사를 전했다.

졸업 30주년 동창 대표로 단상에 선 이해경 동창은 “1992년도에 졸업한 통계학과의 1기 동창이 올해 처음으로 졸업 30주년을 맞이하였다”고 밝히며 “대강당 채플 시간에 강당 문이 닫히기 전에 도착하기 위해 지하철역에서부터 뛰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올라 막바지 이내 오르기 계단이 최대 고비였는데 오늘 보니 반갑기만 하다”라고 추억

하였다. “136년간 명문 이화로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이화인 선조들이 잘 지켜냈기에 가능한 것들이었다”고 하며 “이화! 지금까지 안녕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안녕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어서 김은미 총장이 창립 136주년을 맞아 모교를 방문한 동창과 가족들을 환영하며 모교 소식을 전했다. 김은미 총장은 “이화 졸업생들의 역사는 대한민국 여성의 역사이고,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왔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발자취를 기록하고자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관련 자료를 집대성하는 ‘창립 15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첫 작업으로 이화역사관에 보관되어

2002년 ‘올해의 이화인’들이 졸업 50주년 기념 후원금을 전달했다



있는 이화 설립 초기의 선생님들의 기록물을 번역 해서 출간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이화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여성 종합대학이자 연구 중심대학이기 때문에 이화의 역사를 널리 알려야 하는 소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연구·산학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역과 세계에 대한 대학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캠퍼스 환경 구축에 힘을 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일에 동창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지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한다”고 인사말을 맺었다.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 추대식

1부 기념식을 마치고 2부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 추대식이 주종미(체육 92) 회우부장의 사회로 성대하게 열렸다. 주종미 부장은 “올해는 ‘영원한 이화인’을 처음으로 추대하는 아주 뜻 깊은 해”라고 알리며, 각자 맡은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여 명예로운 자리에 오른 22명의 ‘영원한 이화인’과 44명의 ‘올해의 이화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얀 저고리와 연분홍색 한복을 입고 무대 한가운데 도열하여 앉아 있던 ‘올해의 이화인’들은 학과와 이름이 호명되면 분홍 마스크를 벗고 다섯 명 단위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였다. 첫 번째로 황현선(중문 92) 동창이 호명되자 객석에 있던 중문과 동창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일어나 뜨겁게 환호하였다. 객석에서는 같은 과 동창을 더 크게 응원하려는 합성과 열기로 달아올랐고, 장내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듯 들뜬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이어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영원한 이화인’ 입장식이 진행됐다. 모교 음대 교수인 박소현

(종음 99) 동창이 웅장하게 오르간 행진곡을 연주하며 분위기를 이끄는 가운데, 모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홍보대사 ‘이화캠퍼스 리더’ 학생들이 무대 양옆에서 ‘영원한 이화인’을 에스코트하며 입장했다. 1956년 졸업생부터 재학생 후배에 이르기 까지 70여 년을 아우르는 선후배의 만남이었다. 이화의 상징색인 녹색 당의와 자줏빛 고름, 연한 미색 치마를 반쳐 입고 쪽 끈 머리 위에 얌전한 가채를 얹은 품위 있는 의상은 분홍색의 ‘올해의 이화인’ 후배들과 어우러져 무대를 풍요롭게 가득 채웠다.

동창들은 1기 ‘영원한 이화인’의 등장에 열렬한 박수로 환영하였고, 단상에 있던 ‘올해의 이화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배들을 맞으며 경의를 표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영원한 이화인’에게 일일이 증서를 전달하며 축하하였다. 해외에서 추대된 4명 중 2명의 동창이 이 행사를 위해 먼 거리를 마다않고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고, LA의 김영미(독문 72) 동창은 손녀가 대신 증서를 받으려 단상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어서 오늘의 행사를 축하하는 오르간 연주가 울려펴졌다. 박소현 동창이 파르디니의 〈어메이징 그레이스(Toccata on “Amazing Grace” arr.C. Pardini)〉를 연주하여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기념식 내내 입장과 퇴장에 힘찬 행진곡으로 축하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한편 2002년도 ‘올해의 이화인’ 동창들은 올해 졸업 50주년을 기념하여 총동창회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14명이 특별기부금을 마련해 대표로 권필숙(사복 72) 동창이 단상에 올라 남상택 총동창회장에게 전달하였고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동창들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마지막 순서로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원현미(작곡 88) 동창

의 지휘와 오르간 반주에 맞춰 한마음으로 소리 내어 교가 제창을 하였다.

이화의 든든한 울타리에 다시 들어와 기뻐

졸업 50주년과 30주년을 기념하고, 올해 처음 추대된 '영원한 이화인' 동창을 축하하려 모교를 찾은 재상봉 동창들은 기념식이 시작되기 전에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삼삼오오 모여 함께 사진을 찍으며 기념했다. 그중 녹색 당의를 입고 교정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영원한 이화인'은 단연 돋보이는 자태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우리 과가 유난히 선후배의 정이 도탑다"며 즐거운 표정을 짓는 사회학과 동창 부대의 약자지껄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영원한 이화인'으로 추대된 사회학과 11기 대표 윤명근(사회 72) 동창을 축하하려 온 25명의 동창들이다. 일찍 와서 교내 식당에서 점심식사 하고 교내투어도 하고 왔다는 동창들은 '이화캠퍼스 리더'로 활동하는 사회학과 4학년 재학생 후배의 안내를 받아 아령당과 중앙도서관을 둘러보고 왔다고 한다. 사회학과 회장 신혜령(사회 75) 동창은 "이전에는 사회학과의 동창 교수님들이 재상봉 동창을 인솔하고 교내를 안내했는데, 이번에 재학생 후배한테 설명을 들으니

학교의 발전하는 모습이 더 실감이 나고 좋았습니다. 1972년 졸업생 11기가 10명 정도 참석하고, 그 윗기에서도 4명이 오셨어요. 작은 회의실을 빌려 차를 마시고, 준비한 선물도 드리는 시간을 가겼습니다"라고 소개하였다.

'영원한 이화인' 박현숙(국문 57) 동창은 1952년 한국전쟁 피난 시절 입학하여, 한 학기를 부산의 임시 교사에서 수업하였던 추억을 소개했다. "진흙밭에 계단이 많은 낡은 집에서 한 학기 수업하고 환도했지요. 당시에는 전교생이 2,000명에 불과했어요." 마치 이화 역사의 한 장을 펼쳐보는 듯 소중한 기억이었다.

'영원한 이화인' 1기 대표인 임덕기 동창은 "졸업 후 50년을 인생의 바다에서 항해하다가 힘든 시기가 올 때는 이화여대를 졸업했다는 궁지와 자존감으로 벼렸다"면서 '이대동창문인회'의 총무로 오랫동안 역할하면서 늘 이대와 맥이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임 동창은 "신촌에 모교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고 항상 그리웠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딸과 사위와 함께 손자가 학원까지 빠지고 할머니를 축하해 주려 왔다며 기뻐했다.

"생각지도 못하게 학교에서 동창들을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힘이 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가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을 위한 디과회



족들에게도 너무 자랑스러워요”라고 소감을 전하는 조애진(커미부 66) 동창은 남편과 아들 며느리와 동행하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

아침 일찍부터 강행군에도 지친 기색 없이 에너지가 넘치는 임계순(사학 67) 동창은 “깜빡깜빡 시들어가는 우리를 ‘영원한 이화인’으로 추대해 주니 생기가 다시 돌아나고 애교심이 막 샘솟아요”라며 “몸은 바깥에 있지만 늘 모교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최선을 다해 사회와 모교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기념식을 위해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남편과 함께 날아온 정선주(성악 68) 동창, 의대 동창들이 많이 축하하러 와줘서 든든하다는 하와이의 김춘실(의학 72) 동창은 고령임에도 시차의 어려움 없이 교정 곳곳에서 가족, 동창과 반가운 조우를 하며 종횡무진했다.

후배인 ‘올해의 이화인’들 역시 “30년 만에 다시 이화의 울타리에 들어오게 돼 감사하다”며 “작은 힘이나마 열심히 돋겠다”(최유선(유교 92))고 다짐했다. 2022 ‘올해의 이화인’ 대표 홍은영(커미부 92) 동창은 거리 두기가 완화돼 얼마 전에 ‘올해의 이화인’ 전체 모임을 했다고 전하며 “학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서인지 금방 친해졌다”라며 단합을 과



시했다. 커미부는 88학번 모두가 같이 ‘올해의 이화인’이 되자고 의견을 모아 24명의 동기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학과와 동창회에 후원금을 기부했고, 행사는 홍 동창이 대표로 참석했다며 동기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대를 이은 이화 사랑도 주목받았다. 황현선(중문 92) 동창은 어머니 이재순(초교 68) 동창(1999년도 ‘올해의 이화인’)에 이어 ‘올해의 이화인’이 되었다. 또한 곽상희(영문 92) 동창은 외할머니 방숙자(가사 41) 동창과 어머니 최청규(영문 65) 동창에 이어 3대가 이화 동창이다. 딸을 축하하기 위해 기념식에 참석한 광 동창의 어머니 최청규 동창은 “올해 103세인 어머니가 몇 해 전 100세 된 기념으로 장학금을 전달하려 모교 본관을 방문했다”고 했다. 최 동창은 ‘이화 3대 모녀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딸이 ‘올해의 이화인’이 돼 축하하러 학교에 다시 오니 기쁘다며 환하게 웃었다.

기념식이 모두 끝난 뒤 ‘올해의 이화인’과 ‘영원한 이화인’은 아령당으로 이동해 단체 사진을 찍고 총장 공관에서 다과를 즐기며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이화 창립 136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에 참석한 동창들은 김은미 모교 총장이 오찬을 대신하여 준비한 한과 선물세트와,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수건 기념품을 안고 내년을 기약하며 대강당을 나섰다. 대강당 가득 올려 펴지는 웅장한 오르간 연주가 깊은 울림과 여운을 안기며, 내년에는 모든 동창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기념식을 치를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최지영(사학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이화와 민족과 세계에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2022년 5월 10일(화) 오후 2시 이화 창립 136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가 영상예배로 드려졌다. 감사찬양예배는 이화와 민족과 세계에 선한 일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화 캠퍼스의 아름답고 소박한 기도실의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종교음악과 동창들로 이루어진 그레이스 합창단의 경배와 찬양송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예배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이치복(종음 97) 동창의 지휘와 김재희(종음 97)·강다영(건반 04) 동창의 반주로 20여 명의 합창이 울려펴졌다. 내 죄악을 멀리 옮기신 하나님을 느끼는 감동의 찬양.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이화의 종교음악과가 다시 복원되기를 기도하게 되었다.



성시열(의학 81) 의대 동창회장의 기도는, 1885년 내한 한 닥터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며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한 의대 동창들의 사업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셨음을 느끼게 하는 기도였다. 이화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며 이 땅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를 기도드렸다.



안선희 교목실장은 '약속, 희망, 사랑의 낭비'라는 제목으로 사 43:15-19, 행 9:36-40절의 본문에 대해 말씀을 전해 주셨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 여호와의 기적,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명령. 여제자 다비다(도르가)의 죽음을 베드로가 살리는 본문. 전염병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게 된 사람들… 절망적 상황을 타개하고 자 하나 힘든 현실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상상력으로 돌파구를 찾아내야 한다. 희망을 잃지 않고 이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전 것을 생각지 말자. 어두워가는 시대에 다비다의 사랑의 낭비, 헌신적으로 남을 돋는 모습을 보면 이화 동창들도 사랑의 낭비를 할 수 있기를 권



안선희 교목실장, 신재경 선교사, 성시열 의대동창 회장, 성혜옥 선교부장(위부터)



'이화를 위한 기도'를 올린 남상택 총동창 회장, 김은미 총장, 유경하 의료원장, 박채운 학생대표(위부터)

유하는 말씀이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강한 능력이 덧입혀짐으로 사회에 역동적인 강과 평등과 능력이 더해져 크신 은총이 함께 임하실 것을 축복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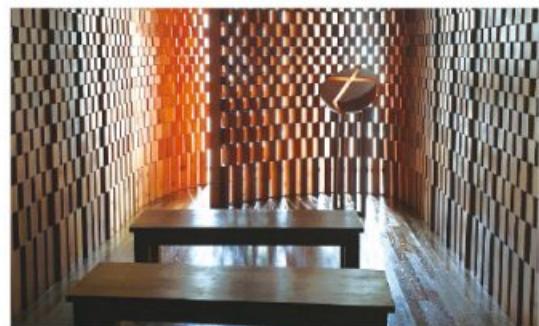
5대양 6대주에서 선교하는 이화 동창 선교사들의 찬양송과 함께

이어 130여 명의 이화 동창 선교사들을 대표하여 9명의 선교사들(미얀마 안형숙/영국 한현주/일본 김지윤/C국 노선영, 원혜림/페루 오주엽/미국 주재 일본 선교 신율미/캄보디아 홍유안/V국 하윤희 동창)이 각자의 나라에서 <선한 능력으로>를 부르며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각 나라의 인사말로 함께 인사하는 모습과 더불어, 조용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된 찬양의 감동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의 신재경(영교 85) 선교사의 간증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선교 상황과 전쟁 상황에 대해 들으며 중보기도 하는 시간도 있었다. 그들의 아픔을 깊이 동감하며 폴란드에 가서 난민 구호 사업을 통해 그들을 계속 돋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전해지길 바라며, 열방이 신앙의 전초기지가 되어 전쟁이 종식되길 기도드렸다.

성혜옥(영문 70) 총동창회 선교부장이 '이화를 위한 기도'에 대해 안내한 데 이어 김은미 총장, 남상택 총동창회장, 유경하 이화여대 의료원장의 인사와 기도 제목들이 올려지며 함께 중보기도 드렸다. 박채은(대학원 뇌인지 석사과정) 이화기독학생연합 대표의 인사를 통해 캠퍼스 선교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비대면 수업을 통해 소속감의 부재로 학교에 대한 자궁심이 줄고 예수님을 당당히 전하지 못하는 학생들, 믿지 않는 임원진들의 복음화에 대해 중보기도를 부탁하였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기도로 말씀 안에서 믿음의 리더들로 거룩한 문화를 세워갈 수 있기를 기도하게 하시는 시간이었다.

이어 성혜옥 선교부장의 기도로 현금 시간이 있었다. [신한 100-035-608520 남상택]의 계좌로 모금된 현금은 동창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선교 현금이니 더 많은 후원을 기대해 본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이화 창립 137년 감사찬양예배 때에는 다 함께 대강당에 모여 기쁘게 찬양하며 이화의 교가를 부르며 감동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기도드린다.



이화 동창 선교단(위)과 그레이스 합창단의 찬양송이 울려퍼졌다(아래)

글·안영주(유교 88)



2022 영원한 이화인 (1956년~1972년 졸업)

과(학부) 순서로 계재



박현숙(국문 57)
대한부인회 활동



임덕기(국문 72)
시인, 수필가,
(사국제펜 한국본부
여성작가위원회,
이대동창문인회 이사



김영미(독문 72)
이화여자대학교 독문과
동창회,
장학위원회 활동



임계순(사학 67)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전국여교수연합회 자문위원



임인선(사학 72)
주부



박재옥(정외 72)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JP D&D 대표이사



조애진(커미부 66)
한국모유수유넷 회장,
육아방송 이사장



윤명근(사회 72)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11기 대표



김휘성(사복 67)
상암상사 대표이사



모혜정(물리 62)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송준임(생명 71)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임금자(기악 59)
동덕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정선주(성악 68)
북미주지회연합회 고문,
이화국제재단 자문이사,
헬렌김소사이어티 멤버



윤순호(조소 72)
강남 사립 이화유치원
설립 및 원장 재직 중,
조각가



유인희(체육 56)
국제재단 자문이사,
여성회 자문이사,
전 토론토 한인 YMCA이사장



김은산(교육 59)
홍익대학교 명예교수,
서머힐학교 한국 최초의
연구 소개자



전혜경(영교 68)
전 보스톤 영어유치원 원장
전 이화여자대학교/
한신대학교 강사



홍종선(영교 69)
항공대학교 명예교수



김춘실(의학 72)
자연농업과 전인적
건강에 대한 강의 활동
열방대학 간사,
시인



정준순(악학 72)
악학대학 동창회 고문
전 악학대학 동창회장(28대)
전 총동창회 부회장(17대)
시인



권혁란(제약 72)
신창요양병원 원장,
경희대학교 한의대 의외교수,
대한 여한의사회 명예회장



최봉순(식영 69)
대구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2022 올해의 이화인 (1988년 입학, 1992년 졸업)

과(학부) 순서로 계재



황현선(중문)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스튜디오사업부 총괄



곽상희(영문)
(주)가산 대표이사



송미경(불문)
로레알, 세린느, 코오롱
마케팅 및 홍보,
송복은장학재단 이사장



황지숙(독문)
미드웨스트 대학교 크리스천
리더십 박사,
1992년 김애다상 수상



최수현(기독)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88학번의 영원한 과대표



신호경(정외)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및
정보시스템학 박사,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정희정(행정)
한국씨티은행 경영관리본부장,
CAO(Chief Administrative
Officer)



홍은영(커미부)
비타메이트,
비타카페 마케팅이사,
입체교육 연구소 대표



민현주(사회)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
경기대학교 교수



현리사(사복)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수매니지먼트 주식회사
총괄본부장, 사회복지사



홍승렬(심리)
이화여대 사무직원(부장)
이화여대 사무직원(부장)



진양혜(수학)
에스엔제이커뮤니케이션즈
이사, 아나운서(방송인)



윤은영(통계)
㈜뉴로공간 대표
이사, 아나운서(방송인)



박효서(물리)
변호사



백혜진(화학)
삼성증권 SNI 전략담당 상무



김경아(컴공)
LG CNS Learning&Development 총신대학교 교수
담당 상무



정지강(피아노)
총신대학교 교수
담당 상무



이수연(성악)
합창 지휘자,
문화예술 메디치클럽 운영자



이현주(작곡)
피아니스트, Manhattan
School of Music 석사,
Hartford University 박사수료



최수황(종음)
미주 장신대 PTSA 겸임교수,
한국 코치협회 편집국장(전문코치)



한나라(한음)
국악퓨전그룹
'페르시안블루' 활동 중,
'해금나라' 교습소 운영



최성희(동양화가)



정소연(서양미술가)



김은영(섬예)
㈜아일랜드 텍스타일 디자인 실장,
한양여대 겸임 교수,
공예가 협회회원/섬유작가



홍지양(생미)
부천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교수



안연숙(장미)
(주)한섬, 제일모직 등 디자인실
실장,
성신여대, 연세대 등 겸임교수



이은주(도예)



김옥자(체육)



장지원(무용)
한국춤문화자료원 공동대표,
무용평론가



최일선(유교)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경아(초교)
신중초등학교 교사



박선경(교공)
(주)엑스프트컨설팅 부사장



오정현(사회과교육)
휘경여자고등학교 교사



김재령(과교)
애플산부인과 원장



이윤진(수교)
이화여대 수학과 교수,
수리과학연구소장



태지영(법학)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김성은(국제사무)
안산대학교 비서사무행정과
교수



정혜경(의학)
이화여대 의과대학 내과학
교수



문현숙(간호)
이대서울병원 간호팀장,
강서구간호사회 회장



최경숙(약학)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약무정보팀장,
병원약학분과협의회장



이준희(제약)
문화약국 대표약사



황현주(가관)
(주)운진개발 대표이사



지수현(의직)
원광디지털대
한국복식과학대학 교수



김유리(식영)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모교의 성장에 기댈 언덕이 되고 힘이 되어 주는 이화 동창에게 감사를

2022년 6월 14일(화) 오후 12시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이 초청하는 ‘총동창회 후원이사 오찬회’가 학교법인 이화학당 행정동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모교 발전을 위해 후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은 총동창회 후원이사들을 위해 마련한 감사의 자리로,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과 김은미 총장, 윤순희 전 고문, 이경숙 고문, 남상택 총동창회장, 이명경·조미숙 총동창회 부회장 및 임원진, 최남경 대외협력처 부처장을 비롯해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 등 후원이사 80여 명이 참석했다.

곧이어 장명수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준 건 이화의 교육이며, 이화에 입학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다”라며 “이화에서 받은 가르침과 사랑을 후배들이 똑같이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후원자들에게 감사와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은미 총장은 “이화는 136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2만 5,000명 학생과 25만 동창, 1,000명의 교수, 800여 교직원의 종합대학으로 성장하였

다”고 전한 뒤, “곧
다가올 창립 150주
년을 위해 이화역
사관에 보관된 창
립 초기 선생님들



장명수 이사장 남상택 총동창회장

의 손 편지 등 자료를 번역하고 출간하는 작업을 비롯해 ‘창립 15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며 이화의 역사를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모교가 성장하는데 기댈 언덕이 되고 힘이 되어 주는 동창들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오찬회를 마련한 장명수 이사장과 학교 관계자 및 올해 처음 추대된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을 비롯한 후원이사와 총동창회 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이화가 더 크게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경숙 고문은 “화기애애한 자리에 참석해 영광이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화를 더 잘되게, 명품 명문가를 견고하게 쌓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화답했다.

참석자들은 아름다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 속에 서 단체 사진을 찍고 이화학당 행정동 앞뜰에 마련된 오찬을 즐기며 담소를 나눴다. 이날 모교에서는 《이화소식》 책자와 기념품을, 총동창회에서는 여행용 파우치를 참석자들에게 증정하였고, 특별히 김은미 총장은 직접 만든 수제 쿠키를 선물하며 정을 나눴다.

글·최지영(사학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라

방주교회

An Chapel



어두운 길을 걷다 보면 누군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순간이 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쳤을 때 최고의 의술과 최첨단 의료 시설의 도움 못지않게, 누군가 보내는 작은 위로가 큰 힘이 될 때가 있다. 입가에 스치는 작은 미소, 함께 걷자고 내미는 손, 따뜻한 한마디 그리고 마음을 담은 기도는 든든한 베풀목이 되어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 기독 병원 내에 있는 교회는, 어둠 속에서 서성이는 환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의료진에게도 위안을 주는 공간이다.

2019년 5월 개원한 이대서울병원은 “환자들의 아픈 몸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지친 마음 까지 치유하는 환자 중심 병원이 되겠다”며 나눔과 섬김의 기독 정신을 펼쳐 놓는 공간을 병원 내에 만들었다. 이대 대학교회 교인들의 소중한 현금과 기도로 마련된 방주교회가 그곳이다.

방주교회 내부는 십자가와 나무 의자가 놓인 작고 소박한 여느 기도 공간과 다를 바 없지만, 교회 밑바닥을 밖으로 드러낸 특이한 설계가 이채롭다. 방주를 형상화한 교회의 아랫 부분이 아트홀의 천장에 조각 작품처럼 매달려 있어 경이롭기까지 하다. 방주라는 공간 속에서 대홍수의 환란을 이겨낸 것처럼, 이 교회가 앞으로도 환자와 가족, 의료진에게 휴식과 구원, 생명을 살리는 모범을





보여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주일예배, 수요예배, 어린이 예배, 교직원 예배가 매주 대면으로 드려졌으나 현재는 한시적으로 주일예배는 각 병동 TV 채널(90-1)과 이화의료원 원목실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고, 교직원 예배는 최근 대면으로 전환되었다.

방주교회 원목실(이화의료원 최문영 원목)은 “사랑의 기독교 정신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구한다”는 이화의료원의 사명에 따라, 병원 내의 예배, 중환자실 기도, 병동 심방, 신앙 상담 등의 사역도 담당하고 있다. ‘치유와 병원 선교의 공간’에서, 심신이 지치기 쉬운 교직원들은 안식과 평안을 얻고, 환자와 가족들은 질병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간절히 엎드려 기도한다. 특히 방주교회는 수술실과 중환자실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어서, 수술 중이거나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종교와 관계없이 이곳에서 기도 드리고 위안을 얻는 사람들이 많다.

불안과 두려움이 닥칠 때 “늘 곁에서 함께 기도하겠다”는 희망에 기대어 생을 보듬고 지친 몸을 일으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두려움이 안식으로, 울음이 미소로, 형클어진 마음이 고요한 평화로 바뀔 때까지 방주교회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만나고 싶었습니다 /

대안학교 '서머힐'을 한국 최초로 연구·소개한
김은산 동창

'우리나라 교육이 나의 선교지'라는 사명으로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이자 한국자율교육학회(前 한국니일연구회) 초대 회장, 홍익대 부속여고 교장 등을 역임한 김은산(교육 59) 동창. 20세기 대표적 교육개혁가 닐(A.S.Neill)의 사상과 그가 세운 실험학교 '서머힐'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연구·소개한 인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김동창은 1936년생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로 '서머힐'의 교육 철학과 실제를 전했다. 호탕한 웃음으로 모교 재학 시절을 회상할 때는 씩씩하고 활달했을 '20대 김은산'의 모습도 보여 주며 유쾌하게 인터뷰를 이끌었다.

평생에 걸쳐 연구하고 알려온 '서머힐'은 과연 어떤 학교인가요?

영국 서포크주에 있는 '서머힐'은 5~16세 아이들 80여 명이 다니는 남녀공학 국제 기숙학교예요. 1921년 이 학교가 세워질 무렵 학교들에서는 무조건 외우기와 가죽 매를 휘두르는 일이 흔했어요. 설립자 닐은 '학교에다 아이들을 맞추는 대신 아이들에게 맞추는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이 실험학교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본연의 모습대로 생활하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 많은 자유를 허용했어요. 즉 행동의 자유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감정적 자유로는 어른들의 벌, 명령, 훈계, 잔소리 등을 일체 없앴어요. 공부의 자유도 허용해 수업은 진행되지만 출석은 학생들의 자유 의사에 맡겼어요. 시험과 숙제도 없앴어요. 그 대신 학생과 교사가 동등한 권리로 참여하는 전교회의에서 정해지는 많은 약속이 있었어요. 이 약속을 어겼을 경우의 제재도 전교회의인 학교 법정에서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보았지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모든 아이가 어려서는 주로 노는 데 열중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발견했어요. 13세쯤 되면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의 열기는 대단해서 수업이 강제인 학교에서 8년간 하는 내용을 단 2년 반이면 거뜬히 다 마쳐 좋은 성적으로 대학 진학이나 취직들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또 '서머힐'은 학교폭력·왕따·자살·약물중독 등 세계적 골칫거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었어요. 민주 시민 양성의 확실한 방법도 알려주었고요. 개교 100주년이 지난 지금은 실험의 좋

은 결과를 세상에 보여 주는 시범학교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서머힐'을 소개한 「니일의 사상과 교육」(1972)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나요?

대학 시절 보고서 준비를 하다가 도서관에서 닐의 일본어판 저서인『문제의 교사(問題の教師)』를 발견했어요. 이 책은 모교 안인희·박정례 두 교수님이 헌책방에서 발견하여 읽은 후 큰 감동을 받고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했던 것이었어요. 졸업 후 공군사관학교 심리연구사로 일할 때 도서관에서 또 다른 닐의 책『문제의 가정』을 발견했어요. 당시는 두 아이의 엄마였고, 평소 우리 교육에 불만이 많았던 저에게 그것은 '깜깜한 방 안에 스며드는 한 줄기 햇살' 같았어요. 저 자신도 닐의 사상을 더 잘 알고 싶었고 남들에게 더 널리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닐의 책을 번역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서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마침 남편이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으로 발령을 받아 가족이 함께 일본으로 갔어요. 닐 저서들의 번역자인 은퇴한 세모다 세이지 교수를 수소문해 찾아갔지요. "한국에서도 닐의 저서들을 번역할 수 있도록 나를 닐에게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30대 초반의 외국 여성이 찾아와 초면에 그런 부탁을 하다니 무척 황당했을 거예요.(웃음) 그러나 그분은 닐의 사상이 워낙 급진적이니 자기의 책『니일의 사상과 교육』을 먼저 번역·출간해 반응을 본 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갓 출간된 책에 서명을 해서 건네주었어요. 그 번역서가《새교육》1972년 8월호 별책부록으로 출간되어 전국의 교사들에게 무료 배포되었어요. 고민이 많던 당시의 우



1988년 '한국니일연구회' 창립총회를 마치고 회원들과 함께. 앞줄 왼쪽부터 김인희(연대)·강성위(외대) 교수, 김은산 동창, 김정환(고대)·정세화(이대)·이상금(이대) 교수

리나라 교사와 교육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여러 차례 '서머힐' 학교를 방문하셨어요. 처음 방문했을 때 소감이 어땠나요?

1975년에 모교 대학원에서 「A.S. 니일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서머힐' 학교에 꼭 직접 가보고 싶었어요. 1982년 당시만 해도 해외 나가기가 어렵던 시절이었지만, 홍익대학교에서 여름 방학 때 프랑스 국제미술학교에 공부하려 가는 대학원 팀과 동행하면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한국인 최초로 '서머힐'을 방문하여 2주간 머물면서 찬찬히 보았지요. 자유롭게 놀고 공부하며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직접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학교와 학원에서 시달리는 불쌍한 우리나라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다른 교육의 길도 있는데...' 하고 생각했어요. 그 후 1987년 '서머힐 친구들 (The Friends of Summerhill)'의 발족 모임에 다시 갔어요. 그때는 준비해간 질문지로 '서머힐' 출신 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지요. 두 차례의 '서머힐' 탐방 체험은 닐의 대표적 저서『Summerhill』을 번역한『시험도 숙제도 없는 행복한 학교 서머힐-권말 부록:역자 학교 탐방기』에 실려 우리나라

라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었어요.

‘서머힐’과 일본판 ‘서머힐’이라는 ‘기노쿠니어린이마을학원’의 교육을 비롯해 한때 열린교육을 알리는 데도 힘써 오셨습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활동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1988년 6월 ‘한국나일연구회’가 발족되었어요. 닐 저서들의 번역 출판, 직접 녹음 제작한 비디오테이프의 판매 및 대여, 월례연구회 개최, 매년 국내외 자율학교 탐방, 탐방 보고서를 실은 회지를 발간하여 전국의 교육학과나 유아교육학과가 있는 대학에 무료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꾸준히 해 왔어요. 또 1991년에는 ‘서머힐’의 영향을 받아 열린교육을 실시하는 국내의 운현초등학교와 영훈초등학교 교장들을 중심으로 ‘한국열린교육연구회’를 발족했어요. 열린교육의 보급이 ‘서머힐’ 교육사상을 부분적으로나마 우리 교육에 적용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저도 적극 참여했지요. 영훈초등학교의 열린교육 공개수업에는 전국에서 수백 명의 교사가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그러면서 열린교육 실시 학교들이 하나둘씩 늘기 시작했어요. 5년째 되던 해의 총회에 청와대 교육담당 보좌관이 처음 와서 축사를 했어요. 앞으로는 당국이 열린교육 실시 학교와 교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그러자 열린교육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학교들이 서둘러 열린교육 연구수업 발표회를 개최하면서 교사들 사이에서 “열린교육? 열반계 하는 교육이다”는 등 큰 반발이 일어났어요. 그 결과 공문서에서 열린교육이란 단어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모처럼 자발적으로 서서히 피어나던 교육 개혁의 불씨가 안타깝게도 꺼지고 말았지요.



2001년 조이 닐(Zoe Neil, 닐의 딸) ‘서머힐’ 교장 부부가 ‘서머힐’ 폐교 위기 때의 성원에 대한 감사 인사차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 원쪽부터 토니 레드헤드(조이 닐 서머힐 교장의 부군), 호리 신이치로(기노쿠니어린이마을학원 원장), 조이 닐, 김은산 동창

일본에서 가장 신나는 학교라는 기노쿠니어린이마을학원은 30년 전에 닐과 듀이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프로젝트 수업방식으로 운영하는 숲속의 작은 초등학교로 출발했어요. 호리 신이치로 학원장의 책 3권을 번역 출판했어요.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1년에 100여 명의 한국 교사들이 이 학교를 찾고 학생들 간의 교류도 이뤄졌어요. 우리나라 교장 연수회의 때 혁신학교 강사로 호리 학원장이 초빙되어 오는 등 꾸준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대안학교 교육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리나라의 대안교육을 운영하는 분들이 흔히 대안학교(Alternative School)의 세계적 모델로 ‘서머힐’ 학교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서머힐’의 기본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는 생각해 볼 문제예요. 사실 ‘Alternative’라는 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제일 먼저 ‘양자택일’, 즉 ‘선택 가능한 것’이 나오고, 뒤에 가서 ‘대안적인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서머힐’을 진짜 ‘Alternative Education’의 모델로 생각한다면 학생들에게 많

은 선택의 기회를 주는 학교가 되어야 해요. 심지어 공부할지 말지, 언제 할지, 무엇을 할지도 학생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대안학교라는 명칭 대신 ‘선택을 허용하는 자율학교’라고 하는 편이 맞아요.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미 자율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교장에게만 교사 임명권과 교과 편성에 약간의 자율권을 허용하고서 자율학교라 부르고 있어요. 학생들이 빠진 자율학교죠. 그래서 걱정이에요. 하지만 올 3월에 개교한 경기도교육청 산하 공립대안학교 ‘신나는 학교’에 기대하는 바가 커요. 영국에서 ‘서머힐’을 공부한 하태욱 교수가 교장을 맡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 학교가 제대로 된 자율학교로 운영되어 다른 대안 학교들의 모범이 되었으면 해요.

이화가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순천의 매산고등학교라는 미션스쿨을 다니면서 슈바이처 위인전을 읽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 독신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런 생각은 대학교 4학년 때 김활란 총장님의 조언으로 한방에 깨졌죠.(웃음) 당시 김활란 총장님이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과 교양>이라는 강좌를 대강당에서 진행하셨어요. 매주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강의하셨는데, 어느 날은 ‘독신’이 주제였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나를 보면서 나도 총장님처럼 독신으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독신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혹 그런 마음 먹었다면 우선 나를 찾아오세요. 내가 만나 보고 나서 말해줄 테니.” 수업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오자 친구들이 “은산아, 총장님 찾아가 봐라”고 입을 모았어요.(웃음) 그래서 진

짜 갔지요. 총장님은 “선교사가 되겠다니 참 좋은 생각을 했네요. 그런데 그런 좋은 일을 왜 혼자서 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같이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나요?”라고 물으셨어요. 또 어린 시절 가정예배 때마다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 장차 훌륭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사 기도하셨어요. 한번은 아버지께 어떻게 되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인지 여쭈었어요. 아버지는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 좋은 사회인’이 되는 것이며 ‘좋은 사회인이란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가르침이나 김활란 총장님의 조언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더라고요. 2차 ‘서머힐’ 방문 때 잠자리에 들었는데 불현듯 ‘장차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하는 질문이 떠오르면서 선교사가 되고자 한 나의 선교자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 때문에 죽어가거나 고통받는 많은 아이를 살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로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이화에 안 왔더라면 ‘서머힐’도 못 만났겠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2019년 7월 국내 체험단 40명과 함께 ‘서머힐’의 개교 100주년 사전 행사인 ‘서머힐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다녀온 김동창은 올해가 가기 전에 조이 닐 서머힐 교장의 책『Barefoot in November: Parenting the Summerhill Way(11월의 맨발-서머힐 방식으로 부모 노릇하기)』를 공역으로 번역할 계획이다. 또 7차례의 탐방기를 정리해서 책으로 낼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글·정진숙(행정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세계 각지에서 100여 명 동창이 글로벌 화상회의에 참석해

총동창회는 4월 28일(목) 오후 1시 ‘각 과,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외 지회장 초청 간담회’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비대면 줌(Zoom) 회의로 열었다. 글로벌 화상회의에는 국내는 물론 북미주, 아시아 등에서 약 100여 명의 동창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한 해의 중요한 총동창회 사업에 대해 알리고, 팬데믹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동을 이어나가는 각 과, 대학(원), 국내외 지회의 소식을 나누며 이화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이다.

한미경(물리 88)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회의는 성혜옥(영문 70) 선교부장의 기도에 이어 남상택(물리 74) 총동창회장의 인사말, 김은미(사회 81) 모교 총장의 모교 소식, 2022년도 사업계획 보고, 참석자 소개와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화의 기적 같은 성과는 이화 동창들이 만들어 낸 선물

성혜옥 선교부장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화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화동산을 공유하고 채플을 나눴던 하나님의 이화인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 이화에 대한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소망한다”

고 기도드렸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시차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함께한 동창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한 뒤, 국내외 지회장과 단과대 및 과 동창회장, 이경숙·김영주 고문, 모교 소식을 전한 김은미 총장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남 회장은 “올 해부터는 동창의 날 기념식이 일부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동창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면서 “총동창회는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이 더 값지고 빛날 수 있도록, 모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은미 총장이 영상으로 모교 소식을 전했다. 김은미 총장은 캠퍼스에 완연한 봄꽃 소식을 전하며 “1학기에 정상화 1단계를 시작하면서 많이 돌아온 학생들 덕분에 오랜만에 학교가 활기 넘친다”고 반가운 소식을 알렸다. 이어 ‘지속가능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 혁신 플랫폼’이라는 비전 아래 지난 1년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총장은 동창들의 많은 호응과 지원 덕분에 2021년 기부 약정액이 최근 2년간 연간 평균 기부 약정액의 2배를 상회하였음을 밝히고 감사를 전했다.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



진 '이화·디올 파트너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재학생을 위한 멘토링, 인재개발 프로그램 외에도 한국 최초로 2022년 디올 가을 컬렉션쇼를 이화에서 개최하게 되었다고 알린 후 "학생들에게 글로벌 행사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또 전 세계에 이화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1886년 여성의 이름과 사회적 자아가 없던 시절, 단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해 오늘날 전 세계 최고의 여성 교육기관으로 성장한 기적의 시간은 바로 우리 이화인들이 만들어 낸 빛나는 선물"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이화의 걸음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2022년 총동창회의 사업계획 보고가 있었다. 한미경 총무는 '창립 136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는 일부 대면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공지하였고, 올해 새롭게 졸업 50주년 동창을 대상으로 '영원한 이화인' 추대 행사가 신설되었다고 설명했다. 역시 신규 사업인 '올해의 이화인(이올)' 연합회가 2019년 발대식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였던 정기 모임을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임을 알렸다. 2022년 '이화인의 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고 추후 공지할 것임을 알렸다. 또

한 한미경 총무는 《이화동창》에 동봉된 지로용지로 안내되는 연회비·평생회비 납부회원 배가 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올해도 변함없는 후원과 협조를 부탁했다.

젊은 세대 유입이 동창회의 과제라는 데 공감해

이어진 국내외 지회와 각 대학(원) 보고에서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이 많았지만,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서히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각 지회에서 반가운 소식들을 잇달아 전했다. 시차를 감안해 먼저 해외 지회부터 보고 순서를 가졌으며, 참석한 동창들이 모두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남가주 지회장 정현숙(체육 87) 동창은 올해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10월 27일(목)~30일(일)에 대면 행사로 개최한다고 알리고, "북미주에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이니 동창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미주지회연합회 이사장 황수영(화학 89) 동창은 "작년보다 많은 동창들이 간담회에 참석한 것 같아 반갑다"며 "북미주지회연합회도 총동창회에서 하는 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젊은 세대를 보다 많이 유입하고 싶

다”고 말했다. 필라델피아 지회장 오성실(영문 68) 동창은 “젊은 동창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큰 과제”라고 동감을 표했다. 시애틀 지회장 조혜순(교공 72) 동창, 워싱턴DC 지회장 최미나(관현 90) 동창, 포틀랜드 지회장 김미진(도예 79) 동창은 현지에서는 한밤중의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며 반가운 인사를 전했다.

아시아 지회에서는 호치민 지회장 원귀정(영문 89) 동창이 “호치민 지회가 2020년에 설립돼 현재 46명의 동창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알리고 많은 응원을 부탁했다. 또한 싱가포르 지회장 박현(정외 88) 동창은 여행지에서 인사를 전했고, 베이징 지회장 김정연(영문 98) 동창은 채팅창에 인사 글을 남기는 등 다양한 형태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자카르타 지회장 이익범(국문 85) 동창은 1979년도에 자카르타 지회가 설립돼 현재 28명의 동창이 활동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서 10명 정도 모이고 있다고 소식을 전하며, “총장님 이 전한 모교의 봄꽃 소식을 들으니 학교에 다닐 때 추억에 잠시 빠지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주 지회 염선행(생미 83) 동창은 “30대부터 90대까지 함께 모이는 가족 같은 모임”이라고 진주 지회를 소개하며 지회원들이 진주 출신 박생광 작가의 작품전과 한국 채색화의 흐름전 등을 함께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제주 지회 총무 한선애(사회 80) 동창은 “지난주 16명 넘는 동창이 모임을 가졌다”면서 인원이 많아 OB와 YB로 나뉘어 모임을 가졌다라는 소식을 전했다.

대부분의 과나 지회는 지난 2년간 임원회의 외엔 전체 모임을 하지 못하고 단체 SNS나 소식지

등을 통해 소통해 왔다고 고충을 알리면서, 올 봄 사회적 거리 두기의 완화와 함께 동창 모임을 재개하며 총동창회의 여러 행사의 개최 여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사학과 동창회장 한상혜(사학 73) 동창은 ‘영원한 이화인’ 추대 등 동창의 날 기념식에 어떤 행사가 준비되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졸업 30주년을 대상으로 한 ‘올해의 이화인’ 행사를 시작한 지 30주년이 되었는데, 졸업 50주년 동창들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아 ‘영원한 이화인’을 추대하게 되었다”면서 “명칭은 공모를 통해 ‘영원한 이화인’으로 정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하였다.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졸업 50주년뿐 아니라 그 이전까지 대상으로 해서 1기 ‘영원한 이화인’을 모시게 됐다”고 덧붙이며 “내년엔 더 잘되어 각 과에서 한 분씩 모두 추대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활약한 이화인들의 소식 전하고 격려하는 자리

사회복지학과 엄명숙(83) 동창은 간담회가 이렇게 큰 규모로 열리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는데 반갑고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말하며 “5월에 동창 모임을 기획했는데, 오랜만의 모임이라 30명 넘게 참석한다고 해서 가슴 설레면서 고대하고 있다”고 알렸다. 영어교육과 김은실(영교 85) 동창은 올해 졸업한 신입 동창에게 작은 선물을 전달하면서 “선배들의 사랑으로 젊은 동창들이 동창회에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한편 의대 동창회장 성시열(의학 81) 동창은 메

리 스크랜튼의 아들인 윌리엄 스크랜튼의 서거 100주년 기념행사를 소개하면서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에서 스크랜튼 의료인상을 후원하기로 결정하여 의대 동창을 대상으로 봉사상과 선교상을 제정하게 됐다”고 알리고, 학술 심포지엄과 함께 12월에는 열리는 기념 음악회 소식을 보고하며 “이화 역사를 되짚어 보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해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다.

조형대 동창회장 신영선(장미 88) 동창은 “녹미회에서 국내외 동창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전시를 열었는데 초반 방문객이 1만 명이 넘을 정도로 성황리에 열렸다”고 알리며, “코로나19의 위기에 오히려 더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미술대학이 설립된 곳이 이화여대인 만큼 역사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동창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약학대 동창회장 박병희(약학 84) 동창은 지난 4월 모교 동창회 회의실에서 약대 임원 및 기 대표 회의를 대면으로 가졌다라는 소식을 전하며 50여 명의 인원이 대면으로 참석해 점심 식사와 교내 투어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고했다.

생활환경대 동창회장 김상희(가관 81) 동창은 가정대 동창회인 ‘아령회’ 70주년을 맞아 11월에 학교에서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으며, 인문대 동창회장 안영호(중문 85) 동창은 인문대 학관의 리모델링 및 재건축 공사가 동창의 후원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고 많은 응원을 부탁했다.

대학원 동창회장 이화정(제약 90) 동창은 3만 4,000명의 대학원 동창회는 매년 봄과 가을 신입 동창 환영회와 학술제를 열고 있다고 알리며, 춘

계 학술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음을 보고했다. 또한 성혜옥 총동창회 선교부장은 ‘이화 창립 136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 영상이 5월 10일(화) 총동창회 유튜브 공식 채널에 올라온다고 알리고, 우크라이나에 파견돼 있는 동창 선교사의 간증과 그레이스 합창단의 찬양이 포함돼 있으니 많이 공유해 달라고 부탁했다.

기타 안건으로 이화 창립 136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김상희 생활환경대 동창회장이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행사라 동창들의 관심이 많고, 해외 동창도 문의를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규모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갑자기 대면으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 임원들이 준비를 위해 애쓰고 있다”며 “행사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총동창회 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되었는데, 현장에는 남상택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이명경(무용 77)·조미숙(식영 83) 부회장, 임진(작곡 72)·신경희(수교 77) 감사, 한미경 총무, 김구슬(법학 93) 부총무, 최혜정(한음 90) 지역부장 등 총동창회 임원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촬영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모교에서 대면으로 치러질 동창의 날 행사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는 인사를 주고받으며 폐회했다.

글·최지영 (사학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축·하·합·니·다



졸업연도 순서로 계재



지은희(사회 69) 동창

서울대학교 신임 이사장 선임

지은희 동창이 2월 15일(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비서울대 출신이 이사장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임기는 2023년 1월 24일(화)까지다. 지은희 동창은 지난 1월 서울대 이사로 선임된 이후 1월 21일(금)부터 이사장 직무 대행을 맡아 왔다. 지은희 동창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여성부 장관을 역임하였고,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정의기억재단 이사장 등을 맡았다.



정정엽(서양 85) 동창

제34회 이중섭미술상 수상

정정엽 동창이 제34회 이중섭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중섭미술상은 국내 작가에게 수여되는 평생 있는 미술상이다. 정정엽 동창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의 시선을 바탕으로 여성과 노동의 문제를 회화로 옮겨왔다. 이중섭미술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심사를 열고 이 같은 공감의 미학과 일관된 주제 의식을 높이 평가했다. 수상자에게는 1,00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진다. 시상식은 11월 24일(목) 서울 아트조선스페이스에서 개최되며, 기념전은 이날부터 12월 4일(일)까지 열린다.



이혜영(경영 90) 동창

팀뷰어코리아 대표이사에 선임

이혜영 동창이 팀뷰어코리아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이혜영 동창은 한국 시장에서 팀뷰어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며 견고한 파트너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혜영 동창은 30년 이상 정보기술(IT) 업계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로, IBM에서 파트너 에코시스템 담당 전무로 재직하며 총판, 리셀러, 전략적투자자(SI), 독립 소프트웨어 밴더(ISV), 관리 서비스 제공자(MSP)와의 비즈니스 협업과 채널 비즈니스를 총괄했다.



김성숙(의학 75)·정수경(의학 81) 동창

'제1회 스크랜튼 상' 수상

탄자니아 선교사 김성숙 동창과 전 한독소아청소년과 원장 정수경 동창이 6월 15일(수) 유나이티드문화재단 더글라스홀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제1회 스크랜튼 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는 상금 500만 원과 상패를 각각 받았다. 행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회장 성시열)가 주최하고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이사장 강덕영)이 후원했다. 스크랜튼 상은 이 땅에 온 최초의 외국인 여성 선교사이자 이화학당 설립자인 메리 스크랜튼(1832~1909)과 그의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1856~1922)의 선교 정신에 따라 헌신하고 있는 이대 의대 동창을 발굴,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빛나는 이화인 /

(사)희망의망고나무 & '이광희 부티크' 대표
이광희 동창

'하나님 사랑' 실천하는 '마마리'의 삶에는 마침표가 없다



남산 중턱에 자리 잡은 '이광희 부티크'로 들어서자 시침 편을 잡은 손으로 검은색 스커트를 매만지는 이광희(국제사무 74) 동창의 뒷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순간 패션디자이너라는 그의 달란트를 상기한다. 최근에는 '(사)희망의망고나무(희망고)'를 이끌며 남수단 톤즈를 돋는 아프리카 구호 활동가 '마마리'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동창은 대한민국 오토쿠튀르(고급 맞춤복)의 상징이자 이름이 브랜드인 우리나라 최정상 패션디자이너다.

좋아하는 일을 위해 선택한 길

이 동창이 모교 졸업 후 전공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 색상의 어울림과 디자인 센스 등에 남다른 안목과 감각을 지녔던 이 동창은 국제패션연구원에서 의상 디자인을 공부하고 1979년 하얏트호텔 지하에 의상실을 열었다. 이 동창의 손길을 거친 맞춤복이 대기업 대표의 부인에서부터 정치인의 사모,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내로라하는 상류층 고객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그는 30대 중반이라는 이른 나이에 톱 디자이너의 반열에 오른다.

그는 패션을 종합예술로 승화시킨 개척자이기도

하다. 패션이 사치나 과소비와 동일시되던 1980년대 중반 '이광희 룩스'라는 브랜드로 정기 컬렉션을 열면서 패션의 대중의 생활문화로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패션쇼가 무대 장식, 사진, 클래식, 그림, 조각, 디지털 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협작하는 종합예술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새로움을 향한 이 동창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패션을 문화로 인식시키고자 했던 그의 소명 의식에서 기인한다. 특히 이항성 화백의 회화 작품과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및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살아 움직이는 전시회'로 기획된 '1988년 서울올림픽 기념 초청 패션쇼'는 당시로서는 문화 충격이라는 평을 받았다.

1993년 대전엑스포 공식 초청 패션쇼 우제길 화백의 '빛' 시리즈 작품과 패션의 만남, 2009년 서울 그랜드하얏트에서 개최한 희망의 망고나무 심기를 위한 '패션과 디지털의 만남', 2010년 4D기술과 홀로그램을 이용한 희망의 망고나무 자선 콘서트 'Journey To The African Moon' 등을 통해 '패션이 예술이냐'는 부정적 인식도 불식시켰다.

그의 이런 창작 활동은 1994년 아시아패션진흥협회 선정 '올해의 아시아 디자이너', 산업자원부 '신지식인상',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산업포장 대통령



남수단 톤즈 주민들의 교육과 경제 자립을 위해 세운 '희망고 빌리지' 현수막 앞에서 목공반 학생들과 함께(2013)



톤즈 주민들의 희망이자 생명의 나무인 망고나무에 열매가 열렸다. 망고 열매를 든 아이를 안고 기뻐하는 이 광희 동창(2018)

상'을 수상으로 결실을 맺었다. 1992년부터 시작한 자선 패션쇼는 무의탁 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돕기, 장애인 치료센터와 발달장애인 재활시설 건립 기금 마련, 신장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등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이웃을 향한 그만의 돋기 방식이었다. 여기에는 “선한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어머니의 당부도 한몫했다.

“내 삶의 이정표 어머니”

2009년 3월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탤런트 김혜자씨를 따라 월드비전 봉사 활동을 ‘구경’ 할 겸 남수단 와랍주 톤즈로 떠났다. 남수단은 30년 넘게 이어진 내전 끝에 2011년 수단공화국으로부터 분리·독립한 나라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기근에 허덕이는 척박한 땅에서 우연히 만난 소년의 친절한 배려에 감동한 이 동창은 그곳에 희망을 심기로 결심한다. 그때도 어김없이 어머니가 떠올랐다. ‘어머니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 동창의 어머니 고 김수덕(1913~2003) 여사의 가르침과 위로는 이 동창이 사회에 발을 내디딘 40여 년간 늘 함께한 삶의 이정표이자 원동력이었다.

사업과 사람에 지치고 어려움과 번민에 빠질 때마다 이겨낼 힘을 주고 희망고를 통해 톤즈를 끌어안게 했다.

광주 제중병원 간호사 출신인 김수덕 여사는 평생을 땅끝마을의 해남읍교회를 섬긴 남편 고 이준묵(1911~2000) 목사를 내조하며 해남 등대원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에 혼신을 다했다. 등대원은 이 동창의 아버지가 전쟁고아들을 위해 세운 고아원이다. 어머니는 집으로 찾아오는 한센인을 먹이고 재우는가 하면 양로원 ‘평화의집’과 어린이집 ‘천진원’을 만들어 ‘하나님이 보내 주신 손님들’을 돌보며 당신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자처했다. 아버지도 어머니의 이런 헌신과 묵묵한 내조에 대해 “내 목회의 70퍼센트는 아내가 해준 것”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이 동창은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어려움 가운데는 분명 교훈이 있다. 그 교훈을 배워야 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 진짜 이유다”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견디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는 믿음을 키웠다.

작년 말에 출간한 『아마도 사랑은 블랙』은 코로

나19로 자의 반 타의 반 갖게 된 안식년 동안 그리운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꾸밈없는 문장으로 쓴 책이다. 꼭지마다 지치고 고통받는 영혼을 위로하는 주옥같은 어록들이 담겨 있다. “요즘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남들 앞에 나서기가 여전히 어색하고 쑥스럽다”는 이 동창을 보면 『아마도 사랑은 블랙』의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라는 편지가 떠올랐다. “어머니, 저는 평생, 말하기가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말하고 난 뒤에는 후회와 피곤함이 몰려와 절절매게 되고 턱관절까지 아파지곤 했죠. 일단 말을 꺼내면 제가 한 말에 대해 책임지고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린 시절 제가 본 어머니는 신앙 생활이나 믿음을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 주셨던 분이었거든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말없이 실천하시던 모습을 저는 ‘행동하는 자의 아름다운 침묵’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어요.”

이 동창의 엄청난 내공은 깊은 자기 성찰과 남다른 책임감,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내실 있는 겸손함에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대목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부모님 슬하에서 2남 3녀 중 넷째로 자란 이 동창은 부모님으로부터 ‘섬김의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처음 톤즈에 갔을 때는 가진 돈을 다 털어 망고나무 100그루를 심어 주고 왔다. 심은 지 7년이면 수확할 수 있고 100년 동안 열매를 맺는 망고나무 한 그루만 있으면 가게 하나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에 망설임 없이 그렇게 했다. 귀국 후에도 톤즈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고아와 병자들을 거둬 먹이고 돌보신 어머니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이 동창의 마음에도 톤즈를 향한 사랑이 꿈틀거렸고 더 이상 실천을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망고나무, 희망의 불씨가 되다

그해 11월 외교통상부 산하 비영리 민간단체 ‘희망고’를 세우고 ‘희망의 망고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기획. 톤즈로 날아가 주민들에게 망고나무를 심고 기르는 법을 가르쳤다. 현재 망고 농장에는 4만여 그루의 망고나무가 자라고 있다. 이어 2011년에는 국내 최초로 국제 NGO (사)희망의망고나무를 설립, 톤즈 군수로부터 2만 2,500m²(1만 평)의 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그들의 교육과 자립을 돋는 ‘희망고 빌리지’를 세우기 시작했다. 외국인에게 이렇게 큰 땅을 허가하기는 처음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남수단 당국에 이 동창의 진심이 통한 까닭이다. 이곳에서 어른들은 재봉과 목공 기술을 배우고, 아이들은 컴퓨터를 공부한다. 2012년부터는 메마른 땅을 일궈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아프리카 농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여기서 보낸 오이, 수박, 피망, 옥수수 등의 씨앗이 심은 지 두 달 만에 열매를 맺었다. 이 동창은 그때의 감격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곳에도 농사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확인한 것이잖아요. 너무 설레서 밤잠까지 설쳤어요.” 작년에는 트랙터와 농기구인 삽과 호미, 더 많은 씨앗을 보냈다. ‘トン즈 주민 스스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희망하며.

이것만 해도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 걸려도 다 못했을 일이다. 그러나 이 동창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그의 시선은 톤즈의 한센인들에게까지 가닿았다. 그들에게 식량을 배급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2015년에는 600여 명이 사는 한센인 마을에 예배와 교육 및 의료 공간인 복합센터를 짓기 시작했다. 2019년 8월 센터가 완공되자, 김혜자 씨는 이 동창에게 “너 정말 대단하다. 바늘로 바위를 뚫었구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세상 제일 든든한 후원자인 남편 홍성태(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도 몸을 사리지 않고 일하는 이 동창을 보며 “당신은 편안하면 불안을 느끼는 사람 같아. 고생을 사려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말리겠어”라고 농담을 하면서도 “당신만큼 남 돋는 일에 진심이고 깊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인정해 준다.

보통 NGO 대표들은 직원에게 작업을 맡기거나 현지 현장사업소에 한국인 직원을 두고 일하지만, 이 동창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얘기다. 톤즈에는 현재 현지인 직원들만 있을 뿐 한국인 직원이 없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 지역이라 직원은 물론 자원봉사자조차 보낼 수 없기 때문. 이 동창은 톤즈 직원들과 직접 주고받은 채팅을 보여 주며 “밤낮없이 이렇게 일해요. 제가 실무자 겸 현장 책임자로서

그곳 상황을 매일 체크하고 직접 지시해야 하니까. 실제로 한 달에 반은 발 뻗고 못 자요(웃음). 사람들은 그곳에 가는 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지만, 오히려 여기서 원격으로 일하는 게 더 어려워요. 현장에 가서 일하는 게 훨씬 쉽죠.”

이 동창은 7월 말 톤즈행을 앞두고 있다. 씨앗을 뿌린 농장과 한센인 마을에 건설 중인 초등학교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서다. 그리고 ‘희망고’에 올인하느라 잠시 쉬고 있던 패션 사업도 재개할 계획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동창의 삶에 마침표는 없다. 오늘도 이 동창은 이렇게 기도한다. “아버지께서 제게 맡겨 주신 일은 무엇이든 무조건 감사히 받고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글·정진숙(행정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빛나는 이화인 /
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동창

학자로서 플랫폼 역할을 하며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다



한국경제법학회는 창립 44년 만에 첫 여성 학회장을 선출했다. 이곳은 경제법이론의 연구를 통해 국 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 법 분야의 인재 발굴을 지원하고, 기업의 경영과 정부 정책, 국회의 입법 등에 공헌하고 있는 학회다. 올 해 4월에 한국경제법학회가 선임한 회장은 여성 최

초로 은행법학회장을 역임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법학 90) 동창이다.

산업과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균형을 위한 활동

안 동창의 외대 로스쿨 연구실에는 유난히 그림이 많다. 안 동창이 후원하는 화가의 그림들이다.

10명의 후원자와 함께 화가에게 매달 물감 비용을 후원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후원하는 화가의 철학이나 미술사에 대해 직접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다. 학교에서 보직을 맡기 전까지는 명함에 후원하는 화가의 그림을 넣기도 했다. “도서관의 책과 연필만 있으면 자기 계발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더군요. 능력이 있고 활발히 활동하는 화가도 재료비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취약한 것을 알게 되어 함께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도 항상 열려 있는 안동창이 현재 가장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는 회사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와 금융법이다.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도 지배구조의 이슈이고, 블록체인, 메타버스, 가상자산(토큰) 등의 새로운 기술 현상은 금융법 테두리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있어요. 저는 종전에 없었던 현상들이 투자자와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법적인 대처와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인구구조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P2P법 등 각종 금융업법들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대응 이슈들과 이에 대한 법개정 사안들에 깊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전공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인정받는 안동창은 많은 위원회에 위촉되어 활동했다. 회사법과 금융법 제개정 권한이 있는 정부기관에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하되, 산업과 금융소비자의 보호라는 양자의 균형을 이를 수 있는 제안을 하는 역할을 해왔다. 법무부의 상법개정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금

융발전심의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위원회, 한국은행 CBDC 법률자문단, 감사원의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금융개혁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제도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책에의 반영 및 상법과 금융관련법 제개정에 기여하고 있다. “상법 제3편 회사편 개정을 위한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에서는 회사법의 역할인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조정을 감안하면서 특히 주주 보호방안을 위한 제안을 했고, 금융위원회에서는 환경변화에 부응한 금융산업이 되도록 업규제 체계 개선사항을 제시하되 기술발전과 산업의 비효율적인 전략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금융소비자 눈높이에서 제안하는 역할을 했어요. 특히 정보 비대칭이 심한 영역이고, 기술발전으로 더욱 정보 비대칭이 심한 금융분야에서는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인 금융회사에 비해 열후한 금융소비자의 역량을 높여 질적으로 성장한 금융산업으로 발전되도록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공적 기관의 위원으로서 제재를 다루는 경우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감독기관에서 제재하는 경우 금융회사 종사자들에 대한 제재를 하다 보면 법규 준수 측면에서 엄정한 제재를 해야 하는 측면과 산업측면에서 준법과 내부통제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기업 스스로 직원들을 보호하는 법규준수 문화를 만드는 데 게을리하여 기업은 물론 종사자가 직접 신분적 제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문화를 기업에 정착시키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여전



한국외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금융법학회를 지도하는 모습



2020년 금융보안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히 내부통제 미비, 법규위반사례들이 빈번히 기사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제 정비나 문화 배양을 위한 다양한 외국의 법제와 정책들을 소개하면서 더 많은 분들의 지혜와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윤리와 도덕성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에 힘쓰다

대신증권 경제연구소와 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상법 교수를 거친 안동창은 2007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상법, 금융법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내 소비자법센터의 센터장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자와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및 보호를 위한 법적 이슈를 다양한 전문가나 실무와 연계하여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회원으로 한 금융법학회의 지도교수이기도 하다.

안 동창은 한국외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국가리더학부의 수업을 맡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수업에서는 예비 법조인으로서 법률과목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함양은 기본이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성이에요. 그것이 무너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 되지요. 사

회에서 법률가를 신뢰하는 것은 비단 전문성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반대학원생 수업에서는 법학전공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이를 공유하고 확산하도록 장려하고 있어요. 국가리더학부생 수업에서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느끼고 경험하고 논의하는 기회를 가지라고 조언해요. 사회 현상을 기초로 한 규칙이 법으로 만들어지지만 현상 및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학부에서 익혀야 할 중요한 능력이라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관심을 가지고 경험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것을 강조해요.”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제자들과도 연구회를 만든 안 동창은 코로나19 이전에는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세미나를 개최해 금융법 분야의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했다. “현재는 90여 명의 단체 대화방에서 각종 회사법과 금융법 이슈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와 세미나 프로그램들을 공유해요. 바빠서 직접 최신화하지 못한 이슈들을 빠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서로 지원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분야에서 디지털 데이터 경제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한국경제법학회는 선도적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 관

련 법률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제시하고 공유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 한다. 학진등재지인 이 학회의 《경제법연구》는 연구자는 물론 경제법률 관련 정책수립을 하는 정부와 기업경영 분야에서 참고하는 주요 학술지이기도 하다. “학자들의 연구결과는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회는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장이 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정책 당국, 국회 입법에도 반영이 되도록 전달해야 한다고 봐요. 뿐만아니라 금융소비자, 투자자, 일반인 누구나 쉽게 이런 연구의 성과에 접근하고 습득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 같은 기본자세로 임기 동안 다양한 주제로 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등을 열어 학회가 경제 관련 법률 분야의 대표적인 플랫폼이 되고자 하고 있어요.”

열정적인 연구 활동의 원동력은 가족과 은사님

안 동창이 항상 열려 있는 마인드로 세상을 살피며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한 힘은 가족이다.

“항상 책을 가까이하고 외국어 공부를 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었어요. 잔소리하지 않고도 사람을 변화하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최강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끊임 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여동생 안지현(생물 91) 원장을 포함한 4남매 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되었죠. 또한 결혼 후 임신하여 박사과정에 입학한 이후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준 남편(정재동 세종대 기계공학과 교수)에게 항상 감사해요.”

몸소 행동으로 본보기를 보였던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안 동창에게 이화 재학시절 중 가장 기억나는 순간은 여름에는 덥고 숨차게 겨울에는 찬바람 맞으며, 늦은 시각에 도서관에서 나와 뿌듯한 마음

으로 미술대 앞을 지나 정문까지 걸어가던 때다. 학창 시절 세 분의 은사님에 대해서는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양명조 지도교수님의 수업에서는 정확함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옥무석 교수님은 항상 저를 격려하고 지도해 주셨고, 제가 교수가 된 후에도 많은 조언을 해주신 분이지요. 사회적 이슈를 법철학적으로 탐구하신 박은정 교수님은 지금도 뵙고, 제가 늘 조언을 받고 있어요. 세 분의 은사님은 지금까지도 제게 큰 영향을 주고 계시지요.”

“사회에서 만나는 이화인들은 당당하고 추진력과 에너지가 넘쳐요. 어느 조직에서나 가장 열심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 리더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한 겸손하고 배려와 나눔이 몸에 배어있지요. 최근에 만나는 이화인의 모습은 제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전문가나 각 분야의 리더 및 중간 간부로 활동하는 졸업생 선배들이 함께하는 ‘이화비즈’ 단체예요. 후배들에게 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나누어 최고의 인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선배들이 사회에서 이화인을 응원,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재학 중에 있는 이화인들은 많은 가능성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글·허윤선(정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제7회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자는 총 3명입니다. 이 중 김희진(컴공 05) 동창은 《이화동창》 162호(2021년 봄호)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 코너에 소개한 바 있어 이번에 실지 않았습니다. 김희진 동창은 (주)유라이크코리아 대표로서 뛰어난 창의력과 도전정신으로 AI 가속헬스케어 플랫폼 ‘라이브케어’를 개발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축산의 패러다임을 디지털 축산으로 전환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축산업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빛나는 이화인’입니다. –편집자 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4월부터 두근두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화스렁학교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만나게 되어 참 반가웠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야자수 나무가 어우러진 학교를 보며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한국어 선생님께서 4월 초에 안 계셔서 대체 교사로 중고등학교 수업 몇 과목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아직 크메르어(캄보디아어)로 가르치기 부족하여 언어를 섞어가며 손동작으로 설명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헷갈렸을 것 같은데 너그럽게 이해해 줘서 고마웠습니다.

4월 중순에 캄보디아는 ‘쫄츠남’ 새해 명절을 맞이하여 한 주간 방학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명절에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며 ‘천사’들의 축복을 기다립니다. 캄보디아가 유일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며 주님만 경배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기간 동안 현지 교회 수련회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캄보디아 북서부 시엠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예배 내용을 거의 못 알아들었지만 ‘쁘레야 예수(예수님)’ ‘퉁아이 나哼(오늘)’ ‘슬렐란(사랑)’, 몇 가지 단어들을 들으며 마음을 같이했습니다. 특별히 기도회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들을 보며 저의 영혼도 깨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사사기 6:12) 말씀을 들으며 주의 군사 된 정체성을 새롭게 입는 시간이었습니다.

4월 초에 송인숙(과교 80) 선생님께서 봉사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오셨습니다. 선생님을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뜨거운 신앙과 부지런한 섬김을 통해 많이 도전을 받고 배우게 됩니다. 수련회 동안 송인숙 선생님과 함께 시엠립을 투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타프롬 사원, 바이욘 사원, 앙코르와트 등 유적지를 보며 800여 년 전 캄보디아의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강한 왕국을 건설했지만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고 있는 왕국은 결국 역사의 한순간으로 남게 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직도 사원들 안에 향이 피워져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앙코르와트에서 바깥 숲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푸르른 세계가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

은 새소리 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선생님과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사람이나 다른 신이 아닌 참 하나님이다 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이화스렁과학기술원에 대한 출발로 M-House와 비전센터 봉현식이 있었습니다. 80% 강수량이 예보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

끔한 하늘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진해성광교회 팀과 과학캠프팀이 함께 봉현식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화스렁과학기술원이 시작하기까지 아시아교육봉사회에서 많은 기도와 계획을 해오셨는데 믿음으로 출발하게 되는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과학기술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캄보디아와 세계에 입체적인 선교를 이루길 기도합니다. 더욱 은혜가 되었던 것은 M-House의 건립을 위한 성경필사운동의 필사본이 머릿돌 아래 놓이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곳에 흥왕하기를 소망하며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학캠프팀은 일주일간 졸업생들과 고3 몇몇 학생들을 위한 AI과학캠프를 진행했습니다. AI기기를 통해 pH로 수질을 측정하는 흥미로운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했던 졸업생들이 학교에 있을 당시 기도 모임을 했던 친구들인데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이곳에 대학이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도록 간구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바로 그 학생들이 이화스렁과학기술원의 마중물이 되는 캠프에 참여하게 되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놀라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 11:1).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이화스렁과학기술원은 AI와 화학에 특화하여 온라인 위주로 시작됩니다. 교수님들의 아낌없는 수고가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가주시며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글·홍유안(국제학부 2016/
외국어특수교육 대학원 TESOL 2021)



기·도·해·주·세·요

1.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배하게 하소서.
2. 주변 사람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겸손히 배우고 동역하게 하소서.
3. 학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부어 주셔서 수업에서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나누게 하소서.
4. 이화스렁학교 직원들과 학생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캄보디아에 거룩한 군사로 자라나게 하소서.
5. 이화스렁과학기술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교육기관이 되게 하소서.
6. 김유선 선교사님과 이철희 선교사님의 건강을 온전히 치유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총동창회 소식

2022 '영원한 이화인'·'올해의 이화인' 추대 발대식

총동창회는 4월 9일(토) 오전 11시 동창회관 대회 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2022 '영원한 이화인'으로 선정된 22명의 추대 발대식을 가졌다. 졸업 50주년 동창들을 대상으로 총동창회가 올해 처음 마련한 행사인 '영원한 이화인' 추대 발대식에는 각 과를 대표해 선정된 '영원한 이화인' 12명과 남상택(물리 74) 총동창회장, 임진(작곡 72) 이올 연합회(올해의 이화인 연합회) 회장 등 총동창회 및 이올 연합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한미경(물리 88) 총무의 소개로 '메이퀸 스토리' 영상을 보면서 이화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참석자들은 이후 순서에서 졸업 후 소임을 다하며 살아온 각자의 삶을 소개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우의를 다졌다.

한편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졸업 30주년 동창

중 각 과를 대표해 추대된 '올해의 이화인' 44명의 추대 발대식이 열렸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는 시구를 인용하며 "전문가로, 지혜로운 주부로, 철학과 미학이 있는 엄마와 아내로, 지혜를 찾아 살아온 여성으로서의 지난날에 박수를 보낸다"며 격려하였다. 이어 최은영(물리 87) 이올 연합회 총무가 '메이퀸'부터 '올해의 이화인'까지 이어지는 영상을 소개했고, 자기소개 시간이 이어졌다. 졸업 후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해 온 동창들의 면면이 소개될 때마다 참석자들은 박수와 격려를 통해 이화인으로서의 동질감을 나누었다. 이어 김곡미(생미 87) 이올 연합회 사업부장과 최혜정(한음 90) 총동창회 지역부장이 향후 일정 안내 및 이올 연합회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은 5월 31일(화) 이화 창립 136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에서 추대될 예정이다.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 추대 발대식(왼쪽부터)



4월 정기 임원회 개최, 김영주 고문 연임 결정

4월 정기 임원회가 4월 14일(목) 오후 2시 30분 43명의 임원 중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줌(Zoom) 화상회의로 열렸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성원 보고, 찬송가, 기도, 전 회의록 낭독, 회계 보고와 각 부 및 대학(원) 보고가 있었고, 정기총회 평가와 함께 4월 넷째 주 진행 예정인 각 과,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외 지회장 초청 간담회와 5월에 열릴 감사찬양예배, 동창의 날 행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우선 5월 10일(화) 오후 2시 이화 창립 136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성혜옥(영문 70) 선교부장은 감사찬양예배에 음악대학 회장의 협조로 종교음악과 동창으로 구성된 그레이스 합창단의 찬양이 있을 예정이며, 우크라이나 신재경 동창 선교사의 간증 및 세계 각지에 파견된 동창 선교사들의 랜선 중창을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또한 한국에 들어와 수술을 받는 아이티 심장병 어린이 6명을 돋기 위한 후원 참여를 호소하였다.

이어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5월 31일(화) 오후 2시 모교 대강당에서 2022년 동창의 날 행사가 개최된다고 알렸다. 기념식에서는 ‘올해의 이화인’과 ‘영원한 이화인’ 추대식이 진행되며, 좌석 배치, 간식 등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은주(특교 77) 사범대학 동창회장은 ‘영원한 이화인’의 연령과 건강을 고려하여 행사장에서 쉴 수 있는 의자를 마련해 줄 것과 가족이나 지인 중 한 명이 보호자로서 ‘영원한 이화인’을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전년도 ‘올해의 이화인’과 임원진이 오전 메이크업 때부터 도움을 드릴 것이며 대강당에서는 보호자가 동석하고, 바상 연락처와 개인 차량번호를 사전에 받아 지원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동창 의료진의 협조도 부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념식에서 시상할 ‘빛나는 이화인’ 상 시상을 위한 선정위원회(총동창회 고문, 총동창회장, 부회장, 총무, 문화부장, 홍보부장, 대학 동창회장 2인) 구성을 발표하였다.

한편 김영주 고문의 임기 만료에 따라 연임 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여 김영주 고문의 연임이 결정되었다.

동창의 날 행사 준비

5월 정기 임원회가 5월 12일(목) 오후 2시 30분 28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로 열렸다. 찬송가 봉송, 기도와 전 회의록 낭독, 각 부 및 대학(원) 보고에 이어 상반기 총동창회의 주요 행사인 동창의 날 기념 행사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남

상택 총동창회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기념식장에도 동창들의 참석이 가능해진 만큼 평소 대강당 수용 가능 인원(약 2,400명)의 절반 정도인 1,200명의 동창을 입장시킬 예정이니 참석 가능한 인원을 파악하여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다. 졸업 30주년과 50주년 재상봉 동창은 총동창회에서 일괄 초대장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총장 초대 오찬은 준비하지 않으며 대신 모교와 총동창

회가 준비한 기념품을 참석자들에게 증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합창제도 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경숙 고문은 “오랜만에 모교를 찾은 동창들이 학창 시절을 추억할 수 있도록 교내 가이드나 박물관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창립 기념일이라 교내 대부분의 시설이 문을 닫는데 박물관과 전시관 등을 개방할 수 있는지 건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영주 고문이 “50주년 동창에게 스티커나 코사지를 달아주는 대신 기념 목걸이를 제공하자”는 건의를 하여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 일정 논의

6월 정기 임원회가 6월 16일(목) 오후 2시 30분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25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송가 482장을 부른 뒤 성혜옥 선교부장의기도와 전 회의록 낭독, 회계보고, 각 부 및 대학(원) 보고에 이어 동창의 날 행사 평가와 후원이사 초청 오찬회 등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동창의 날 행사가 대면 행사로 갑자기 변경돼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잘 치를 수 있었다며, 수고한 임원진에게 감사를 표했다. 다만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을 한 무대에 올리는 데 어려움이 있어 내년에는 차선책을 고려해 보자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영원한 이화인’을 에스코트하는 등 행사준비를 도운 ‘이화 캠퍼스 리더’ 재학생들에게

는 상품권을 전달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동창회는 7월 6일(수) 오후 12시 ‘김은미 총장 취임 축하연’을 갖기로 했으며 총동창회 임원진과 각 과 동창회장, 국내 지회장 및 모교 측 참석자를 포함해 초청장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가을에 열리는 대바자회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추석 이후에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11월 ‘이화인의 밤’ 행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어 현재는 대면 행사가 가능해졌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변수이기 때문에 비대면 개최 등 차선책도 고려해서 다시 의견을 나누기로 하였다. 기타 안건으로, ‘이화 가족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진행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올해 개최는 불가하고 내년을 기약하기로 했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선교부 소식

아이티 심장병 어린이들과 함께한 천국 같은 한 달

이화 동창인 헬렌김(정외 88) 선교사는 아이티에서 사역하며 2013년 크리스천 비영리기관인 Development

for Freedom International(DFI)을 설립한 이후, 아이티의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심

장병 어린이 수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이 프로젝트가 2022년 4월 재개되었습니다. 오륜교회(다니엘기도회)와 삼성서울병원 심장뇌혈관병원이 함께 후원하여 아이티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6명을 초청하여 수술을 진행하였고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던 심장병 아이들과 어머니들은 한 달여 시간 동안 수술과 회복기를 모두 마치고 활짝 웃는 얼굴로 지난 5월 20일(금) 다시 아이티로 돌아갔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선교부에서는 이 일을 두고 지속적으로 기도와 후원을 하였는데, 선교부원들 중에는 직접 그들과 함께 숙식하며 병원 수술, 회복 과정을 주의 사랑으로 도운 귀한 섬김이들이 있습니다. 그 섬김이 중 한 명인 조선영(영문 74) 동창의 이야기를 나눕니다.-편집자 주

2022년 4월 18일(월), 아이티에서 온 6명의 심장병 아이들이 어머니들과 함께 입국했다. 그로부터 보름 전인 4월 초, 그들의 생활을 도울 도우미를 구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잠을 설쳤다. 상세한 내용을 들어 보기도 전에 주님은 내 머릿속에 이미 어떤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림을 주셨다. 아이들이 오니 수술 후에는 주일학교를 해야 할 것이고, 어머니들의 신앙을 모르니 복음을 확실히 전해야겠고, 통역도 필요하고, 병원까지 운전도 해야 하고, 수시로 필요를 채울 눈치도 있어야 했다.

그동안 피곤과 각종 부담에 지쳐 있을 선교사님이 쉴 수 있도록 내가 전적으로 숙소에서 먹고 자야 겠다는 마음. 또 아이티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숙소 주인에게도 이들이 무시 받지 않도록,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보여 줘야 겠다는 마음이다. 예전에 단기 선교와 탄자니아 우물선교를 통해 아프리카인들을 대하여 느껴왔던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조금은 용기가 났다.

은근히 주님께서 “도우미는 바로 너네!” 하시는 듯했다. 과연 내가 그들과 한 달이나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내가 아이티까지 가지 않아도 찾아온 그들을 섬긴다는 것은 아무래도 주님이 내 평생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 다음 날 숙소 사감으로 자원하게 되었다.

6명의 아이들과 어머니들은 아이티 전 지역에서 추천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었기에 서로를 알지 못했다. 관계를 쌓아가는 가운데 약 2주일에 걸쳐 수술과 후속 조치들이 끝났다. 어떤 날은 3명이, 또 어떤 날은 2명이 수술했고, 위중한 아이는 하루종일 혼자 수술을 했는데, 그때마다 의료진들을 위한 수많은 중보기도가 이어졌다. 드디어 마지막 아이 까지 모두 퇴원해서 숙소로 돌아오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아이들이 수술을 마치기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찬송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지켜보았고, 정철 선생님의『Who Made the World?』그림 교재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신앙을 짚어 보았다. 6명의 어머니들은 각자 있는 지역에서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주님께 감사드렸다.

남자 통역 담당자는 영어와 모국어를 하고 나는 영어와 우리말을 하니 소통에 문제는 없었지만 자연스럽지는 않았다. 수술 기간에 통역 담당자는 온전히 병원에만 있었기에 숙소에는 나 혼자였고, 눈치와 손짓으로 그들과 며칠을 버텼다. 그래도 따뜻한 감정과 자신들을 온전히 섬겨 주는 마음이 통해서인지 분위기는 아주 훈훈했다. 기도를 가장 많이 받은 아이의 어머니가 우울한 마음으로 있는 것을 보면서 양재 꽃시장도 같이 가고 선교부장을 만나 함께 식사하며 어두운 마음을 위로하기도 했다. 저녁에는 그들을 데리고 인근 아파트 단지의 운동기

구를 시도해 보며 불안과 염려를 잠시 잊어 보았다. 아이들이 퇴원해서는 놀이기구도 태우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들의 환한 모습이 눈에 선하다. 통역 담당자를 아침, 저녁으로 병원에 데리고 다녀야 해서 근처에 사시는 권사님들을 동원하기도 했고 단체 외출 때는 이웃교회 목사님께 차를 부탁드리기도 했다. 성숙한 청년들은 주일에는 재미있는 놀잇감으로 시간을 함께해 주기도 했다.

숙소 주인은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계약할 때는 “예수 얘기만은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으나 점점 마음이 누그러지며 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들락거리며 저들을 돌보고 있는지 궁금해했고, 시간이 갈수록 태도가 부드러워졌다. 내가 항상 돌보고 있으니 오히려 주인은 든든하게 생각했고, 나도 전도를 하는 기회가 되어 감사했다.

이들을 섬기며 특히 어려웠던 일은 재활용 분리하는 일과 우리가 준비한 먹을 것들을 선불리 손을 대지 못하고 처음 10일 정도는 병원에서나 집에서나 스파게티, 모닝빵, 옛날 통닭만 주문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밥을 해 놓으면 기름과 소금을 넣어 볶아서 먹었고, 양념해 온 LA갈비는 다 씻어서 다시 간장과 마늘만 넣고 먹으며 우리의 양념이 너무 달아서 못 먹겠다고 했다. 나는 매일 무슨 재료가 떨어지는지 보충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사랑의 공급을 볼 수 있었다.

주일에는 함께 성경을 찾아 읽고 나눔을 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떠날 시간이 다가오니 선교사님은 28인치 대형 캐리어 7개를 주문했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 유모차를 3대 구해왔다. 새로 산 캐리어에는 여기저기서 기증받은 선물들로 꽉꽉 채워 주고 따로 큰 손가방들을 또 하나씩 채워주셨다. 어떻게 도울지 물어본 나의 친구들에겐 돈을 넣은 봉투를 7개 만들어서 쇼핑을 할 수 있게 했다.



어떤 이들에게는 채온계를 부탁하기도 했다. 출발 이틀 전, 쿠팡 로켓배송에서 물건과 값을 보여 주며 밤늦게까지 함께 물건을 구매한 일은 정말 재미있었다. 짐을 싸며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이 소중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길 기도했다. 오륜교회 봉사자들이 여러 팀으로 나눠서 도와주었는데 한 팀은 30개의 대형 캐리어에 짐을 다 싸서싣고 또 다른 팀은 집을 깨끗이 치웠는데 그것을 본 숙소 주인은 또 감동했다.

다음 날 새벽, 인천 공항으로 짐을 내려 주고 수속해 주는 봉사자들이 왔다. 나는 이들이 떠나고 나면 여전히 남아 있을 쓰레기들을 정리하기 위해 머물다가 모두 떠난 새벽 6시에 쓸쓸히 가방을 끌고 나왔다. 하지만 마음은 날아갈 것같이 기뻤다. 서로의 약함을 보이며 사랑하며 나누며 도운 이 일로 천국을 맛본 것 같았다. 그들과 함께한 보석 같은 시간이 흐른 지 보름이 지난 지금, 여려모로 많이 변화된 나의 모습을 느끼며 다시 한 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더불어 많은 중보기도와 기도처를 제공해 주시며 배려해 주신 삼성서울병원 원목님께도 감사드린다.

글·조선영(영문 74)

이화 창립 136주년 기념식 개최

이화 창립 136주년 기념식이 5월 31일(화)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된 이날 기념식에는 장명수 이사장, 김은미 총장, 남상택 총동창회장 및 전임 총장 등 주요 내빈과 세계 30여 개국 대사, 전·현직 국회의원, 근속 교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으로 시작해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성장한 이화의 창립을 축하했다.

김은미 총장은 기념식사를 통해 '지속가능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혁신 플랫폼'의 비전하에 연구 중심대학 활성화, 이화 교육의 혁신, 학생 지원 강화, 행정 효율화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이화 문화 확산의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성과를 밝혔다. 이어 김 총장은 "단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해 세계 여성 교육을 품는 거목으로 성장한 이화의 역사는 이화만의 역사가 아닌 대한민국 여성의 역사가 되었고, 이화의 교육은 시대의 변화를 이끌며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발전을 견인했다"고 136년 이화 역사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러한 발자취를 기록하고 세계에 공유하기 위해 학당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관련 자료를 집대성하는 창립 15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선언했다. 또한 교육·연구·산학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역과 세계에 대한 대학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캠퍼스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희(이화·금란중학교) 교사, Brendan M. Howe(국제학과) 교수, 김지연(대외협력팀) 직원이 30년·20년·10년 근속 교직원 141명을 대표해 표창을 받았으며, 한국 최초 장애인 여의사 황연대(의학 63) 동창과 국내 1세대 피아니스트 장혜원(피아노 62) 명예교수가 '제20회 자랑스러운 이화 인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거두어 이화 정신의 귀감이 된 동창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또한 '제18회 이화학술상' 수상자인 불어불문학과 송기정 교수와 생명과학과 오구택 교수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이화학술상'은 모교 교수 중 학문과 학교 발전에 기여한 교원에게 평생 1회에 한



해 수여되는 상으로, 소속 기관장의 추천과 우수 교원포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송기정 교수는 국내 최고의 프랑스 문학 전문가로서, 프랑스 문학과 연관하여 역사 및 젠더 등의 광범위한 방법론을 넓고 깊이 있게 연구했으며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인문학 진흥 프로그램 활성화와 인문

학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 분자발생유전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오구택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리더연구자로 2012년부터 연이어 선정되고, SCI급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최고 수준의 연구 활동을 펼치며 모교의 연구 역량과 학문적 수월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있다.

2022 ‘인공지능 융합혁신 인재양성 사업’ 선정

모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인공지능 융합혁신 인재양성 사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모교는 향후 4년간 총 50여 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인공지능(AI) 융합인재 육성과 연구역량 확보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번 선정으로 모교는 일반대학원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부 내에 ‘인공지능융합전공’을 신설하고 올해 2학기부터 신입생을 교육한다. ‘인공지능 융합전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다양한 도메인에 융합할 수 있는 인재

육성과 인공지능 융합 연구를 위한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모교 인공지능·컴퓨터공학·전자공학·사이버보안·휴먼기계바이오공학·의학·경영학·생명공학·통계학 전공 28명의 교수진과 국내 31개, 해외 3개 등 총 34개의 기업 그리고 이화의료원이 참여한다. 모교는 이대목동과 이대서울의 2개 대학병원을 갖추고, 그동안 의과대학은 물론 생명과학, 휴먼기계바이오공학 등 다양한 학과들이 양 병원과 인공지능 융합 연구 및 산학협력을 활발히 해왔기에 큰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첨단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인공지능 기반의 학과·학제 간 융합 연구를 통해 실무형 인공지능 고급 인재에 대한 산업 수용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 디올과 파트너십 협약 체결

모교는 세계적 패션 브랜드 디올(Dior)과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가능 사회 구현에 공동 노력하기 위한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디올이 국내 대

학과 단독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것은 모교가 처음 이자 유일하다.

김은미 총장과 크리스챤 디올 꾸뛰르의 회장 겸 CEO 피에트로 베카리(Pietro Beccari)는 4월 29일(금) 이화역사관에서 ‘이화–디올 공동 파트너십’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을 통해 모교와 디올은 디올쇼를 비롯한 행



협약식에 참석한 디올 관계자들과 함께한 김은미 총장

사 개최에 협력하고, 학생 참여 및 산학협력, 장학금 기부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디올은 모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현장실습 프로그램, 리테일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통한 직원 채용,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학생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본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4월 30일(토) '2022년 가을 디올쇼'가 모교에서 개최됐다. 디올이 한국에서 쇼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디올 쇼는 캠퍼스의 랜드마크인 ECC(Ewha Campus Complex)에서 개최됐다. 세계 3대 건축가로 꼽히는 프랑스의 도미니크 폐로가 설계한 아름다운 건축물 ECC에서 국내 최초로 개최된 디올쇼는 독창적인 무대로 꾸며졌다. 이번 쇼를 이끈 디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Maria Grazia Chiuri)는 이번 쇼에서 젊고 도전적인 여성의 모습을 강조한 컬렉션을 선보였다. 이날 쇼는 컬렉션 분위기에 맞춰 여성 스케이터들이 런웨이 주행을 펼치며 시작했으며, 쇼 마지막에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가 모교 이름이 새겨진 점퍼를 입고 런웨이에 나서 인사를 전해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쇼에는 헬퍼 드레서 경험이 있는 모교 학부생, 대학원생 등이 백스테이지 드레서로 참여해

글로벌 무대를 경험했다. 또한 행사에 사용된 백스테이지 소모품과 무대 셋팅에 사용된 자재들을 모교 패션디자인전공 및 조소 전공의 전시와 수업에 활용하는 등 이번 행사가 학생들의 학습과 경험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5월 1일(일)에는 김은미 총장과 디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의 특별 대담이 중강당에서 220여 명의 모교 재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대담은 두 여성 리더가 여성 역량강화와 여성 리더십의 중요성과 가치를 공유하고, 미래 리더로 성장할 모교 재학생들에게 조언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대담은 한국인 최초 CNN 지국장 출신인 손지애 초빙교수가 사회를 맡아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와 김은미 총장은 이화-디올의 파트너십 배경 소개를 시작으로 여성의 리더십, 패션산업에서의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의 대담을 펼쳤다.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는 모든 여성이 다른 개성과 목소리를 지녔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김은미 총장도 모교의 영문 교명의 'WOMANS'에 담긴 여성 개인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설명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대담 이후 마련된 Q&A 시간에는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에게 성공한 여성 리더로서 개인적 강점이 무엇인지, 디올이 추구하는 여성상은 무엇인지, 런웨이 장소로 한국 특히 이화를 선택한 배경이 무엇인지 등 관중으로 참여한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Community)를 중시하고, 그 안에서의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학생들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은미 총장, 美 하버드대·브라운대 초청 특강

김은미 총장은 4월 20일(수)부터 28일(목)까지 미국 보스턴 등 동북부 지역을 방문해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 브라운대학교(Brown University), 웰슬리칼리지(Wellesley College)의 총장 및 주요 인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양교의 발전과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하버드 대에서는 '디지털 변혁과 팬데믹 시대의 한국 고등교육'을 주제로, 브라운대에서는 '코로나와 디지털 변혁 시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각각 특강을 진행했다.

김 총장은 우선 4월 20일(수) 하버드대 로렌스 바카우(Lawrence Bacow) 총장과 면담하고 이화-하버드 발전방안과 상호 간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교는 미국 하버드대와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파트너 대학으로서, 2006년부터 이화-하버드 서머스쿨 프로그램을, 2007년부터 이화-HCAP(Ewha-Harvard College in Asia Program)을 공동 운영하며 협력해 오고 있다.

다음날인 4월 21일(목)에는 하버드대 한국연구소 초청으로 '디지털 변혁과 팬데믹 시대의 한국 고등교육'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후 김 총장은 4월 23일(토) 보스턴 지역 동창들을 만났다. 보스턴 지회(회장 김지영)에서는 총 15명의 동창이 참석해 이화의 발전 방향에 대한 김 총장의 비전을 들으며 질의응답을 가졌다. 동창회는 김 총장의 방문을 기해 '이화 2030+ 발전기금'을 모교에 기탁했다.

김은미 총장은 이어 웰슬리칼리지를 방문해 펠라 존슨(Paula Johnson) 총장과 면담했다. 특히 다양한 분야 여성 고등교육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기관으로서 과학기술(STEM), 인공지능(AI), 의료, 개발 연구, 여성 연구 등의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학생 교류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브라운대를 방문한 김 총장은 크리스티나 팩슨(Christina Paxson) 총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브라운대는 김은미 총장이 사회학 석·박사학위를 받은 모교이기도 하다. 김 총장은 크리스티나 팩슨 총장과 면담하고 대학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십과 대학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리고 김 총장은 브라운대 'Chong Wook Lee and Vartan Gregorian Distinguished Lecture Series'의 강연자로 초청받아 '코로나와 디지털 변혁 시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디지털 변혁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근본적으로 논의하고 개발도상국 문제, 불평등 및 여성권익 악화 이슈가 지속하는 가운데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제개발협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은미 총장과 하버드 대 로렌스 바카우 총장(왼쪽부터)

김정옥 동창, 이화여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60억 기탁

‘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 이사장 김정옥(독문 69) 동창이 “이화가 인문정신에 기초한 문화 발전의 전당이 되기 바란다”며 사재 60억 원을 모교에 기탁했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한 모친 故 김희경 여사의 유지를 이어 2010년 제2대 이사장에 취임한 김정옥 이사장은 ‘인문학의 발원지인 유럽의 인문학을 배워 우리의 정신문화와 접목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한국 고유의 정신문화를 확고히 하자’는 비전에 충실하면서도 광범위한 학술 지원과 장학 사업을 하고 있다.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 사회에 나아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사회에 환원해 달라”는 취지 하에 2002년 독일현지어학연수장학금 후원을 시작으로 이화-괴팅엔대학교 교환학생프로그램장학금을 쾌척해 이화인들이 독일 문화와 유럽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2021년 학관 리모델링 및 재건축 기금을 후원하여 교육 환경 개선에 큰 힘을 보태는 등 각종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지속적으로 기부해 왔다.

이번 기부를 포함해

김정옥 이사장은 총 80억 원이 넘는 사재를 이화에 후원해 오고 있다.

기부를 통해 후속 세대가 훌륭한 인격 체로 성장해, 그 후 대에게 더 나은 정신

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큰 기쁨을 느낀다는 김 이사장이 바라는 것은 나눔의 확산이다. “기부가 가져오는 기회와 변화를 경험하여 나눔의 순기능과 기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며 “후배들이 사회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고 나눔을 실천하는 인재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화인들이 최적화된 첨단 공간에서 학문에 매진하고, 원어연극 등 창의적 상상력을 키워 주는 문화 활동을 경험하며, 수준 높은 문화의식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김은미 총장은 “다양한 문화 활동과 학술 활동이 가능한 응·복합 문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인간 중심의 교육과 연구에 더욱 힘쓰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정옥 동창

스마트 러닝 공간으로 새로워진 이화의 교육·학습 환경

교육혁신센터(센터장 임규연)는 이화 고유의

교육모델 ‘THE BEST’를 수립하고, 2022학년도 1학기 230여 개의 교과목을 신설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 융합수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능동학습강의실, 학습자 중심의 유연학습 공간을 구축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 사

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능동학습강의실(ALC, 가변형)은 학습자 주도의 다양한 학습경험과 지식 구성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공간으로, 특히 교육혁신센터는 THE BEST 수업 지원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개념학습과 적용학습의 융합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학기에는 3개의 ALC(Active Learning Classroom) 강의실과 7개의 가변형 강의실이 문을 열었으며, 2개의 기존 ALC 강의실도 고도화 작업을 통해 더욱 스마트한 환경으로 변신했다. ALC 강의실은 강사 및 학생 추적카메라, 천장형 마이크와 그룹별 PC, 모니터 등을 갖추고 있어 융합수업에 최적화된 형태이다. 가변형 강의실은 미디어 시스템 외에도 자유로운 이동과 조합이 가능한 노드체어를 배치하여 토론 및 그룹 활동이 용이하다.

유연학습공간은 학습자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번 학기 이화·신세계관, 생활환경관, 교육관B동 등 3개 공간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번에 오픈한 유연학습공간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공간 구성이다. 개인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



능동학습강의실

하여 비대면수업에 참여하거나 개인학습을 진행 할 수 있는 1인 학습 공간, 간단한 팀 프로젝트나 휴식 등을 할 수 있는 휴식 공간, 바테이블 공간 등으로 구성하여 개인이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육관B동의 경우 유연학습공간 내부에 3개의 독립된 세미나실이 있어 모의수업이나 그룹 프로젝트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교수학습 패러다임이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교육혁신센터는 향후로도 단과대학별 수요 조사 및 융합수업의 확대 여부 등에 따라 능동학습강의실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유연학습공간의 명칭을 'Ewha Learning Space'로 확정하고, 단과대학별·건물별로 추가 구축하여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오래 머무르고 싶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이화역사관에서 동창분들의 유물을 기증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화 동창 여러분.

이화역사관에서는 이화와 관련된 귀중한 자료 및 유물을 확보하여 이화의 역사연구와 전시, 교육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동창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기 : 1960년 이전

종류 : 이화학당 및 이화여전 졸업앨범, 졸업장, 학생증, 통지서, 학교 배지, 교복, 기념품, 표창장, 안내장 등

• 소중한 유물을 기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패를 증정합니다.



전수산의 중등과 졸업증서, 1912



이화여자전문학교 제1회 졸업앨범, 1927

대학(원) 소식

대학(원) 순서로 게재

자연과학대학

회장 __ 최명선(생명 77)

가지고, 대외협력처에서 각 과 자연대 재학생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자연대학 정기 골프대회

5월 9일(월) 양지파인CC에서 자연대 골프대회를 가졌다. 총 7팀 28명이 참가한 골프대회로, 훌인원 기록도 나와 재미를 더했다. 경기를 마치고 뒤풀이로 식사를 하며 선후배 간 담소를 나누었다. 자연대 동창회는 오랫동안 못 만났으나 다시 활발하게 모임을 시작해, 매월 두 번째 월요일 개최하는 정기 대회와 함께 비정기 모임을 가지고 있다. 가을에 자연대회장배 골프대회가 예정돼 있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자연대 동창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동창활동이 축소되자 동창기금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모교에 장학금 250만 원을 전달하였다. 최명선 회장과 총무가 양인상 자연대학 학장과 부학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식을



골프대회에 참석한 자연과학대학 동창들

의과대학

회장 __ 성시열(의학 81)

제56차 정기총회 및 학술심포지엄

올해는 이화학당을 세운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와 함께 내한했던 아들 닉터 윌리엄 스크랜튼 (1856. 3. 29.~1922. 3. 23.) 서거 100주년으로, 이를 기념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 의과대학 동창회에서는 3월 27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곤지암에 위치한 재단법인 유나이티드문화재단 He' Story Campus 아트리움에서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 서거 100주년 기념 예배와 심포지엄을 열었다. 총동창회 선교부와 모교의 교수들도 참석하여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가 가르쳐 준 이웃 사랑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그 후에 강덕영 유나이티드문화재단 이사장이 '스크랜튼상' 제정을 제안하여 5월 20일(금)에 MOU를 체결하였다.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와 윌리엄 스크랜튼 봉사상을 제정, 매년 모교 의과대학 동창 중 각 1명을 선정하여 500만 원의 상금과 상패를 주기로 하고, 운영비와 상금은 (재)유나이티드문화재단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시상



정기총회에 참석한 의과대학 동창들

식은 윌리엄 스크랜튼이 1886년에 시작한 한양 정동의 ‘시병원’ 개원일인 6월 15일(수)에 개최하기로 했다. ‘시병원’ 한쪽에서 여의사 메타 하워드가 여성 환자 진료를 시작하여 ‘보구녀관’이 만들어지고, 지금의 이화의료원으로 발전하였다.

4월 26일(화) 오후 7시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에서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지침 때문에 미루어 왔던 정기 이사회를 온·오프 하이브리드 회의로 열고, 5월 21일(토) 오후 4시부터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130여 명이 모여 하이브리드 정기총회를 열었다. 정기총회에서 김화내과 김화숙(의학 71) 전 회장에게 ‘자랑스런 이화의인 박에스더상’을 수여하고, 전임 심현(의학 80)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장학금으로 조종남(의학 75) 전 총동창회장이 2,000만 원, 정미라(의학 83) 총무이사가 1억 원, 피상순(의학 84) 지회장이 1,300만 원을 전달하였고, 의과대학 발전기금은 졸업 50주년을 맞은 21회 동기들이 1억 2,500만 원, 졸업 30주년을 맞은 41회 동기들이 6,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화의료원에 우경숙(의학 72) 전 회장이 2,000만 원의 건립기금을, 21회 동기회가 이대서울병원 병동휴게실 기금 2억 원을 전달하였다. 이어서 김승정(의학 92) 이대목동병원 내과 교수와 박진(의학 09)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교수에게 (재)학술연구

재단과 창립 50주년기념 학술연구회에서 각각 1,000만 원의 연구비를 수여했다. 2022년 장학금은 총 2억 8,500만 원을 95명 의과대학생에게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23명에게 1학기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한 이대 총동창회 주관 제1회 ‘영원한 이화인’으로 추대된 김춘실(의학 72) 동창과 ‘올해의 이화인’ 정혜경(의학 92) 동창을 축하하는 순서를 가졌다. 총회에서는 올해의 예산안과 송년음악회 등의 사업계획안이 통과되었다.

5월 29일(일) 오전 9시부터 올림픽공원에서 2년간 취소되었던 봄걷기대회를 열었다. 너무 오랜만에 선후배 및 동기들이 대면으로 야외에서 만나는 기쁨과 감격 속에 좋은 날씨에 함께 걸으며 모처럼 자유를 만끽하는 행복을 누렸다.

약학대학

회장 __ 박병희(약학 84)

졸업 50주년 동창 초청 행사와 졸업 30주년 기념식

5월 14일(토),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약학 43회·제약 22회 동창들이 모여 졸업 3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박병희 회장, 황미경(약학 86) 부회장, 심현진(약학 19) 자료부 차장과 함께 김춘미(약학 66) 교수, 박혜영(약학 76) 교수, 이승진 교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준희(제약 92) 동창은 “대학 다닐 때는 시험과 관련되다 보니 공부가 그리 재미있지 않았는데, 그 시절 공부하였던 것이 제약회사와 약국에서 일하는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김춘미 교수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50대”라는 말씀을 들으며 동창 모두는 앞으로 더욱 이화의 이름을 빛내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였다.

이윤실(약학 85) 약학대학 학장은 이화창립 136주년 기념식이 있던 5월 31일(화) 약학관 404호에서 올해 졸업 50주년을 맞는 약학 23회·제약 2회 동창들을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윤실 학장의 축사에 이어 정준순(약학 72) 동창은 “우리는 졸업 후 모두 각자의 스토리가 있다. 이 나이에 건강한 얼굴로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성공했다는 것이다. 우리 앞으로 더 멋지게 함께하자”라고 하였다. 또 권혁란(제약 72) 동창은 “우리 모두 이대 약대의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자. 미래는 꿈꾸는 자만의 특권이고 희망을 품은 자들의 약속이기에 더 멋진 남은 인생을 위해 노력하자”라고 하였다.

박병희 회장과 임원들의 인사와 다과 나눔 후 대강당으로 이동하였다. 동창의 날 기념식에서는 ‘영원한 이화인’으로 정준순 동창과 권혁란 동창이 추대되어 축하를 받았으며, 최경숙(약학 92) 동창



졸업 50주년(위)과 졸업 30주년 기념식을 가진 약학대학 동창들

과 이준희 동창이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되어 동창들의 축하를 받았다.

대학원

회장__이화정(대학원 92)

신입 동창 환영회 및 동창 명부 배포

대학원 동창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2021년 12월 8일(수) ECC 아삼봉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창립 50주년을 맞은 모교 대학원 동창회의 발전과 도약의 발자취를 기리고 더욱 성장하는 동창회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아나운서 김초롱(생미 08) 동창의 사회로 대학원 동창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됐다.

교수증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한 기념식은 정혜중(대학원 94, 부회장) 대학원 동창회 창립 50주년기념 조직위원장(현 감사)의 개회사, 이화정 대학원동창회 선교부장(현 회장)의 개회 예배로 문을 열었다. 이어 이향숙(대학원 88) 제25, 26대 회장의 환영사와 한유경(대학원 83) 대학원장의 격려사, 김은미 총장과 남상택 총동창회장의 축사를 통해 대학원 동창회 창립 5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축하의 뜻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서 대학원 동창회는 대학원의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고자 ‘이화백년대계 장학기금’을 신설해 1억 2,000만 원의 장학금을 모교에 전달했다. 동창회는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해 꾸준히 ‘이화백년대계 장학기금’ 모금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자랑스러운 대학원 동문’ 시상식이 진행됐다. 동창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해 각 대학원의 추천을 받아 수상자를 선정했다. ‘자랑스러운 대학원 동문’으로는 ▲학술(인문

사회)부문 이소영(대학원 92, 미국 텍사스공대 언어병리학과 교수) 동창, 김경희(대학원 93,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동창 ▲학술(과학기술)부문 임석아(대학원 95,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동창, 김은미(대학원 88,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장) 동창 ▲전문직(경영)부문 유희원(대학원 89, 부광약품 대표이사) 동창, 김효선(대학원 87, 여성신문 대표이사) 동창 ▲전문직(과학기술)부문 황유경(대학원 92, 녹십자랩셀 세포치료연구소장 겸 전무이사) 동창, 안혜연(대학원 83,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 동창 ▲전문직(공공)부문 김정자(대학원 79,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전 정무차관) 동창 ▲주니어 혁신부문 오미란(대학원 15, 미국 애플사 AI/ML Voice Builder Engineer) 동창, 이승윤(대학원 01,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기업고객 사업부 영업대표) 동창 ▲사회봉사부문 김유선(대학원 03, 캠보디아 이화스렁학교 교장) 동창 총 12명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동창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이동원(대학원 63, 12대 회장) 동창과 신승애(대학원 65, 16대 회장) 동창에 대한 공로상 시상도 진행됐다.

끝으로 원광연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동굴벽화에서 메타버스까지: 예술과 기술의 짧은 역사’라는 주제로 강연을, 대한민국 명창 채수정(대학원 97)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판소리가 판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공연을 통해 기념식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4월 26일(화) 오후 4시 신공학관 159호에서 신입동창 환영회 및 춘계 학술발표 행사를 개최하고, 유튜브로 생중계 하여 코로나19 시대에 보다 많은 동창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유경 대학원장, 채문경(대학원 74, 전 회장) 자문위원, 곽은아(대학원 88) 고문위



대학원 동창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원, 이향숙 감사 및 이화정 회장, 김선옥(대학원 07)·정순둘(대학원 91)·박영미(대학원 00) 부회장, 최정아(대학원 98) 총무부장, 송은주(대학원 99) 학술·연구부장, 김미정(대학원 06) 선교봉사·문화부장, 이지이(대학원 01) 사업·기획부장, 최수현(대학원 05)·이혜미(대학원 10) 서기, 김미경(대학원 89) 조형예술대학 회장이 대면으로 참석하였고, 윤금희(대학원 68)·이자형(대학원 73) 자문위원, 정혜중 감사, 박미혜(대학원 95) 의과대학 회장, 윤혜정(대학원 95) 자연과학대학 회장, 김석향(대학원 86) 사회과학대학 회장, 이현주(대학원 06) 경영대학 회장, 이해성(대학원 98) 학술·연구부장, 김정리(대학원 99) 홍보·정보통신부장, 김유리(대학원 99) 선교봉사·문화부장, 강민아(대학원 88) 동창 등 많은 동창생들이 비대면으로 참석하였다.

행사는 송은주 학술·연구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미정 선교봉사·문화부장의 인도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를 합창하였고, 로마서 8장 28절 성경 말씀 낭독과 기도가 있었다. 한유경 대학원장은 “대학원 동창 여러분이 국내외 여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심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오늘과 같은 행사와 이화 동창 네트워킹은 더욱

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다음은 이화정 회장의 환영사와 김보경(대학원 19) 신입동창의 답사가 있었다. 이화정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화여대 대학원은 1950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약 3만 4,000여 명의 우수한 인재들을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면서 성장해 왔고, 대학원의 경쟁력이 곧 대학의 연구 경쟁력과 직결되기에 앞으로도 우리 후배들이 훌륭한 교육과 연구 환경 속에서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대학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격려했으며, 김보경 신입동창은 “이화여대 대학원 동창회 선배들께서 앞서 길을 만들고 저희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늘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후배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영감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다”라고 답사를 하였다.

정금희(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양선영(융합보건학과)·허가빈(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부)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고, 3명의 장학생의 논문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 순서로 모교 물리학과의 김찬주 교수가 ‘물리학, 경이의 장면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하였다. 우리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 물리학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어 물리학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과(학부) 순서로 계제

과(학부) 소식

불어불문학과

회장__서동민(79)

수여되며 올해로 18회째를 맞는다.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기증

작년에 은퇴한 권은미(79)·이수미(외교/불어전공 79) 교수가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불문과 동창회에 기증하였다.

또한 올해 은퇴하는 송기정(80) 교수가 제18회 이화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이화학술상’은 이화여대 교수 중 탁월한 연구 성과를 통해 학문 및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교원에 대해 평생 1회에 한해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증한 권은미·이수미 동창

사회학과

회장 __ 신혜령(75)

팬데믹 이후 첫 동창회 모임

5월 19일(목) 팬데믹 2년여만에 처음으로 사회학과 동창회 모임을 가졌다. 1기에서 30기 선후배 26명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게 만났다. 시종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미루어 왔던 과출신 총장 선출과 이화발전기금 조성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때마침 바쁜 일정에도 김은미 총장이 참석하여 1호로 이대발전기금 모금에 앞장선 과 동창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모교의 근황도 알려 주어 모임은 모교 사랑과 애과심으로 더욱 열띠게 진행되었다. 화제만발 속 동창의 날 행사 준비도 함께하며, 선후배 간 결속을 다지게 된 따스한 시간이었다.



오랜만의 동창 모임으로 선후배 간 결속을 다진 사회학과 동창들



김사찬양예배에서 찬양을 봉헌하고 있는 종교음악과 동창 합창단

을 봉헌하였다.

교회음악 전반을 연구했던 성악·피아노·오르간 3개 전공의 종교음악과였기에 반주와 노래, 지휘까지 오롯이 모두 종교음악과 동창들만으로 구성한 종교음악과 동창 합창단을 조직할 수 있었는데, 비록 비대면으로 감사찬양예배가 봉헌되었지만 작년에 이어 또 한 번 마음을 모아 찬양하는 감사한 시간이 되었다.

코로나19의 공포를 이겨내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연습부터 녹화까지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세대를 넘나든 종교음악과 동창들의 아름다운 참여에, 많은 동창들이 내년에는 대면 예배에 참석해 종교음악과 동창 합창단의 찬양을 직접 듣기를 기대하였다.

동양화과

회장 __ 이승은(89)

종교음악과

회장 __ 오지영(88)

감사찬양예배에서 찬양 봉송

5월 10일(화) 총동창회 유튜브 채널로 중계된 이화 창립 136주년 감사찬양예배에서 종교음악과 동창 합창단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신상우곡)>

이화 창립 136주년 기념전 '메이데이' 전시 개최

모교 조형예술대학 동창회 녹미회에서 2021년도 우수 졸업작품 작가인 10명의 후배들을 초대하여 'VISION 이화미술인' 전을 개최하였다. 동양화과 한소희(재학생) 학생이 선정되어 3월 29일(화)부터 4월 2일(토)까지 이화여대 조형관 A동 2층

이화아트센터 전시에 참여하였다.

5월 24일(화) 메이데이 전시가 오전 11시에 오픈하였다. 이화 창립 136주년 기념전으로 동양화과 3학년 학생들을 주축으로 이화아트센터에서 5월 29일(일)까지 전시가 진행되었다.

5월 31일(화) 대강당에서 열린 동창의 날 기념식에서 최성희(92) 동창이 '올해의 이화인'에 선정되었다. 최성희 동창은 제37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함은 물론 왕성한 작업 활동과 더불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배우자와 지역 사회봉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올 한해 동양화과를 대표하는 이화인으로서 학교의 발전과 동양화과의 위상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메이데이 전시 오픈일에 참석한 동양화과 동창들

서양화과

회장 __ 조은정(85)

동창 작업실 방문 프로젝트

동창 작가들의 작업실을 방문하여 작품 세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친목을 다지는 동창 작업실 방문 프로젝트가 5월 27일(금)에 시행되었다. 2022년 첫 번째 방문지는 경기도 안성의 정정엽(85) 동창의 작업실이었다. 올해 이중섭미술상 수상자로



정정엽 동창의 작업실을 방문한 서양화과 동창들

서 인물, 팔, 풍경 등 한국 사회의 다채로운 부분과 여성들의 노동과 연대에 대해 작업을 해온 작가와의 만남은, 여성들의 연대감 형성에 대한 주제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사회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여성끼리의 대화를 통해 학습하고 더 좋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경험을 기반으로 한 진지한 토론은, 작업의 내용을 넘어 인간으로서 작가가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성찰로까지 이어졌다. 안성의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작업실을 이루기까지 정정엽 작가의 고군분투의 과정에 대한 기록은 한국에서 여성작가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 주는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했다. 서양화과 동창회는 동창 작업실, 갤러리 등을 방문하여 서양화과 동창들의 행보를 조망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동창들에게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동창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다.

조소과

회장 __ 박신정(85)

제39회 이화조각회 정기전

제39회 이화조각회 정기전 '조각가 길을 가다'가

5월 13일(금)부터 21일(토)까지 금보성 아트센터 전관에서 초대전으로 개최되었다. 참여 작가는 강서우(재학생), 강선구(99), 강선희(87), 강승주(87), 강지연(18), 고혜숙(77), 김미경(92), 김보경(19), 김소연(15), 김순임(02), 김양선(94), 김연(91), 김영란(79), 김정연(89), 김종희(79), 김지희(87), 김진선(19), 김형주(84), 김희경(79), 나진숙(84), 박신정(85), 박애란(80), 박은선(98), 박정윤(15), 박주미(22), 박효정(90), 백인정(96), 손유나(15), 손정은(92), 손혜경(03), 신디하(재학생), 신은숙(79), 신은주(79), 안소현(03), 오정선(96), 오주연(90), 옥정빈(22), 우유리(김유리·15), 이경희(86), 이경희(04), 이말용(98), 이서영(22), 이선희(81), 이수민(21), 이수원(12), 이영송(90), 이용현(재학생), 이윤정(91), 이정원(89), 이정자(66), 이지은(97), 이지현(15), 이해련(재학생), 이현숙(85), 임영란(78), 장서영(07), 장선아(90), 장유정(02), 장회준(88), 정다정(19), 정미숙(87), 정향(박정향·15), 조미연(84), 조우빈(17), 조은희(94), 조재영(03), 주지한(21), 지명순(87), 지연신(89), 차경화(00), 최승애(85), 호해란(88), 황영숙(73), 황지선(74) 총 74명(가나다 순)이었다. 전시는 이화조각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 2022년 ESAarts Award 동창 작가 그룹으로 지지추(손유나, 우유리, 이지

현, 정향)가 선정되었고, 전시 지원으로 비가향전 시기획(김진선, 이용현, 이서영, 이수민, 옥정빈)이 선정되었다.

5월 18일(수)부터 23일(월)까지 김영란(79) 동창의 후원으로 조소 전공 대학원생 4인(김진선, 옥정빈, 이서영, 이수민)의 그룹전이 코사갤러리에서 'Oh, 18'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섬유예술과

회장__전영선(88)

온라인으로 총회 개최

섬유예술과 동창회 총회가 4월 2일(토) 오전 11시에 최유리(96) 총무 사무실에서 온라인 줌(Zoom)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총회는 전영선 회장의 개회선언 및 개회사 인사를 시작으로 기도, 축사, 내빈 및 임원 소개, 예미 활동 영상, 2021년 활동보고 및 이화인 소개, 2021년 회계 결산보고, 2022년 연간 예미회 일정계획, 총평, 기념촬영, 폐회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에서 2022년 '올해의 이화인'으로 김은영(92) 선교부장이 선정되었으며, 2022 비전인 작가로는 이은정(22) 동창이 소개되었다. 이번 섬유예술과 동창회에서는 선정된 비전인 작가에게 11월에 열릴 예미전에 전시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하여 역량 있는 후배들의 활동을 응원하고자 하였다.

2022년 '섬유예술전'은 10년 전의 인연으로 오스트리아 한인문화회관 창립 10주년 행사에 초대받아 5월 3일(화)부터 6일(금)까지 전시를 열었다. 10주년 기념 문화행사인 한국 예술제에서는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은 한국의 공연, 전시, 영화, 각종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그중 미술전에는 봉지희



이화조각회 정기전 오프닝에 참석한 조소과 동창들



줌(Zoom)을 통해 비대면 총회를 개최한 섬유예술과 동창회

(85) 동창이 한국의 섬유예술작가 12인의 작품을 선정 및 기획하여 전시를 진행하였다. '2022 한국 섬유예술전'은 12인의 중견 섬유 예술가들의 섬세하고 조형미 넘치는 새로운 창작 세계를 선보였으며 이화 섬유 예술을 유럽에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생활미술과

회장__원미진(88)

온·오프라인으로 연 동창 모임

5월 14일(토) 생활미술과 동창 모임이 열렸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이번 모임에서 그간의 동창 활동을 보고하고 각 활동 부서의 소식을 나누었다. 동창회 활동과 조형예술대학 현황 및 비전 공유, 이화인 활동과 소개, YED (Young Ewha Designers) 소개, 선교부 활동, 2021 비전 이화인으로 선정된 신입 회원, 참여자들의 인사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에는 간단한 게임을 통한 선물 나누기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마

무리 지었다. 또한 한 목소리로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며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던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였다. 생활미술과의 다양한 모습을 나누며 미래를 응원하고 동창애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3월 29일(화)부터 4월 2일(토)까지 이화아트센터 조형관 A동 2층에서 '제14회 VISION 이화미술인 전-2022년우수 졸업작품 초대전'이 개최되었다. 생활미술과에서는 디자인학부 손세희(21),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 전공 신혜빈(22), 디자인학부 전공 장혜원(재학생) 학생이 선정되었다.

손세희 학생은 애니메이션 〈HOME SWEET HOME〉을 통해 우리가 외부에 대해 가지는 경계심은 당연하지만 극도의 경계심은 자신을 사회적, 심리적으로 고립시킨다면 불안을 달래고 집에서 한 발자국씩 나가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신혜빈 학생의 작품 〈라운드 제로〉는 조명 오브제로서 그것이 놓여져 있는 공간에서 작용하는 역할에 집중하였다. 장혜원 학생의 작품 〈바다의 감각〉은 우리가 바다라고 인식하는 것들을 감각과 관념들로 재구성한 것으로 공간적 제한이 없는 바다의 실재를 구현한 바다 어드벤트 캘린더이다.

전시 오프닝에 많은 선배들이 방문하여 후배들의 활발한 활동과 힘찬 미래를 응원하며 축하를 전했다.



동창 모임에 참석한 생활미술과 동창들

장식미술과

회장__김아미(89)

김현중 명예교수 황조근정훈장 수훈

올 2월 퇴임한 김현중 명예교수가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하였다. 김현중 명예교수는 1994년부터 28년간 조형예술대학 디자인학부에 재직하면서 공간디자인 분야의 학문적이고 교육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확립하는데 주력하였고, 특히 공공부문의 디자인 연구에 매진하며 후학 양성에 힘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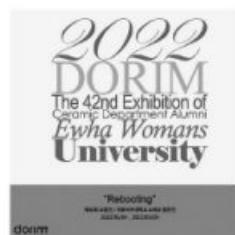
김현중 명예교수

도예과

회장__서혜수(88)

제42회 도림전

도예과 동창회 동문전인 도림전(陶林展)이 5월 4일(수)부터 9일(월)까지 KCDF갤러리(서울시 종로구 관훈동)에서 열렸다. ‘제42회 도림전 ‘Rebooting’ 변화의 시대, 우리의 삶을 ‘리부팅’하다’ 전시는 도림회 홈페이지(<https://www.ewhadorim.com>)의 VR가상 갤러리에서 1년 간 관람할 수 있다.



제42회 도림전 포스터

유아교육과

회장__김용희(89)

스승의 날 행사

유아교육과 동창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팬데믹 상황으로 뵙지 못했던 퇴직 은사와 현직 교수를 초청해 5월 14일(토) 서울 달개비에서 스승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올해 행사에는 간소하게 전·현직 동창회 임원들과 올해의 이화인으로 선정된 최일선(92) 동창만 참석하였고, 은사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사랑과 감사를 전했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시기인지라 식순도 간략하게 황혜현(91) 부회장의 사회와 최혜영(89) 선교부장의 기도로 시작하여 김용희 회장의 감사 인사, 선물 증정으로 진행되었다. 식사 이후에는 이은화(59)·이기숙(72)·홍용희(78) 은사의 덕담과 학창 시절 이야기로 화기애애한 담소와 추억을 나누었다.



스승의 날 행사로 사제 간에 뜻깊은 시간을 보낸 유아교육과 동창회

《이화동창》을 받으시는 동창 여러분 중 주소가 변경된 분은

총동창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

지회 소식

가나다순으로 계재

멜버른 지회

회장 __ 윤숙경(간호 76)

가든 파티로 동창회 모임 열어

2022년 지회 첫 모임을 3월 12일(토) 윤숙경 회장 집에서 가졌다. 코로나19의 위협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이고 계절적으로도 늦은 여름이라, 식당보다는 집이 안전할 것 같고, 또 실내보다는 햇빛과 신선한 공기가 소통되는 실외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가든 파티를 계획했다. 박해주(교공 99) 총무의 수고와, 겹치지 않은 메뉴로 맛있는 요리들을 한 접시씩 준비해 온 동창들 덕분에 어렵지 않게 한 상 가득 푸짐한 뷔페 음식이 차려졌다.

대선배 이경자(영문 59) 동창부터 막내 오윤미(피아노 04) 동창까지 고르게 선후배들이 참여했고, 미처 알지 못했던 모교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듣고 나누며 이화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다

시 한 번 다졌다. 또 각자의 근황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다독이며 선후배 간의 사랑을 나누는 귀하고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몬트리올 지회

회장 __ 김명원(수학 92)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모인 동창들

여러 지회가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년 동안 동창회 모임을 갖지 못했다. 단체 대화방을 통해 크리스마스나 새해, 경조사가 있을 때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만날 날을 기다려 오던 중 드디어 6월 1일(수) 12시에 몬트리올 라살 지역에서 동창들과 가족이 함께하는 동창회를 가졌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동창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밀린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윤숙경 회장의 집에서 가든파티 모임을 가진 멜버른 지회 동창들



가족 동반 동창회에 참석한 몬트리올 지회 동창들

보냈다. 오랜만에 만났지만 전과 같이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유지한 것을 보고 “역시 이대 동창이다”라는 농담을 주고받았다. 이채화(무용 76) 전 회장의 활기차고 재치 있는 진행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임원단에서 준비한 선물들이 전달되었으며, 제비뽑기를 통해 미주 지역 동창회에서 보내준 기념품을 전달했다. 또한 가장 연장자인 박복길(교육 60) 동창에게 감사카드와 특별 선물을 전했다. 아시안 퓨전 메뉴로 식사를 마친 후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더 나눴으며, 단체 사진을 찍고 나서 12월 연말 모임을 기약하며 행사를 마무리 했다.

보스턴 지회

회장 _ 김지영(교육 82)

봄을 맞아 활발하게 이루어진 동창 모임

보스턴 지회는 2022년을 맞아 새로운 회장단이 구성되어, 좀 더 열린 상황에서 조금씩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김지영 회장, 공정원(영문 83) 부회장, 백정희(간호 74) 회계, 윤채린(가관 01) 회계, 이수용(생명 06) 서기, 이계영(종음 02) 섭외, 김정연(불문 01) 기술로 새 임원진이 구성되었다. 이해원(약학 70) 이사장은 3기를 연임으로 수고하고 있다.

3월 초 줌으로 신년 총회를 열었다. 내년에 열릴 보스턴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위한 슬로건 공모를 하여 투표 후 시상도 하고, 보스턴 이화인들의 대학 시절 사진을 모아 <어느 날 학창 시절> 동영상을 만들어 감동적인 나눔도 하였다.

4명의 지역 장학생들이 영상 및 줌으로 참여하여 소감을 발표했는데, 2세들에게 자급하는 장학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던 순간이다.



보스턴에 방문한 김은미 총장과 함께

4월 말에는 보스턴에 세미나차 방문한 김은미 모교 총장과 오찬을 나누며 반가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오랜만에 모교 총장을 맞이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며 이화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모교 발전을 위한 계획들이 뜨겁게 가슴에 전달되는 시간이었다. 동창들이 힘을 모아 모교발전기금도 보낼 수 있었다.

5월 중순,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아름다운 새와 자연 그리고 보스턴의 유명인들의 묘지들이 있는 Mt. Auburn Cemetery로 Field Trip을 방문했다. 동창들과 이화 사위들 그리고 20대의 젊은 신세대대학원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5월 말에는 건강 세미나 <이것이 알고 싶다! 암과 치매 그리고 노화>를 열었다. 보스턴 지역 의학박사 두 분을 모시고, 암과 치매의 연관성에 대한 의학적인 설명과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팁들을 배웠다.

집에서 만든 맛있는 김밥과 유부초밥, 도토리 국수 샐러드, 스펜지 빵, 과일, 찹쌀 컵케이크로 풍성하게 점심을 먹은 뒤, 2부에서는 컵타 배우기, 냅킨 접기와 함께 오랜만에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와 사는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나누며, 따스한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동창회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바자회도 했는데, 검은콩 가루, 비프저키, 도토리 국수, 오렌지 꿀을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

보스턴 지회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만나고 배우며 동창 간의 우애를 다지고 있고 정성껏 후원하고 있다. 또 새롭게 동창들이 연결되는 기쁨이 가득한 감사의 기간이었다.

인천 지회

회장 __ 김영보(약학 81)

애틋하고 소중한 오랜만의 만남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만나지 못했던 인천 지회 동창들이 5월 23일(월) 2년 여만에 공식적인 모임을 가졌다.

1963년 졸업생부터 2014년 졸업생까지 세대와 전공을 불문하고 매달 한 번, 가족 같은 분위기로 모임을 이어 왔던 인천 지회였기에 그날의 자리가 더 애틋하고 소중한 만남이 되었다.

각계각층에서 활동 중인 동창들은 균형을 나누었으며, 특히 총동창회에서 올해 최초로 신설한



2년여 만에 공식적인 모임을 가진 인천 지회 동창들

'영원한 이화인'에 추대된 조애진(커미부 66) 동창과 '올해의 이화인' 이현주(작곡 92) 동창을 미리 이 자리에서 축하하고 함께 기쁨을 나눴다. 더불어 5월 31일(화) '동창의 날' 모교 방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일본 지회

회장 __ 고정희(장미 74)

2년 만에 열린 동창회 모임에서 즐거운 시간

4월 6일(수) 2년 만에 처음으로 동창회 모임이 열렸다. 황민경(영교 86) 동창의 귀국 송별회도 겸한 모임을 김운천(평교원 96) 동창이 경영하는 한식당 민속촌에서 가졌다.

2021년도 동창 활동 보고와 정정자(커미부 65) 동창의 격려 인사, 곽소춘(사학 65) 동창의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과 모두의 건강'을 위한 건배 인사가 있었다.

김운천 동창, 송미연(커미부 86) 부회장, 김덕희(도예 92) 동창, 이명은(생명 14입) 동창, 고정희 회장이 참석하여 맛있는 음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황민경 동창의 송별회를 겸한 모임에 참석한 일본 지회 동창들

진주 지회

회장__조정순(불문 77)

'한국 채색화의 흐름' 전 관람

3월 29일(화) 진주시와 국립진주박물관이 공동 주최하고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리움 미술관 등 국내 유수의 미술관 등이 참여한 대형 기획전인 '한국 채색화의 흐름' 전에 다녀왔다.

한국의 피카소로 알려진 진주 출신 화가 박생광과 추상화가 이성자의 작품을 비롯해, 고려시대 공민왕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천산대렵도>, 김홍도 와 신윤복의 채색화, 이유태, 박래현, 박노수, 천경자, 오태학 등의 작품을 관람했다.

참 색과 참 빛이 흐르는 고을, 문화 예술의 도시인 진주가 박물관과 미술관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진주 시장 부인인 오명옥(사학 90) 동창의 도움으로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관람을 하니, 한국 채색화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작품 하나하나에 애정이 갔다. 몇몇 동창은 작품 앞에서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고 감상에 젖었다.

팬데믹 기간 8인 이하 모임 제한으로 많은 동창이 함께하지는 못했으나, 2년여 모임의 공백을 지나 처음으로 함께한 자리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 채색화의 흐름' 전을 관람한 진주 지회 동창들

필라델피아 지회

회장__오성실(영문 68)

Chanticleer Garden으로 봄나들이

새해 들어 두 번째 대면인 봄나들이로 Chanticleer Garden에 다녀왔다. 비 온 뒤의 맑고 신선한 날씨에 모두 목소리를 모아 "딱 좋은 날"이라 외치며 밝게 인사 나눈 뒤 정원 탐사를 시작했다. 필라델피아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이 정원은 많은 이들이 계절따라 변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 찾는 곳이다.

처음 정원에 들어서면 길 양옆의 화사한 계절 꽃들과 싹트기 시작한 초록의 힘찬 줄기들이 눈을 즐겁게 한다. 나지막한 넓은 동산에 큰 아름드리 벚꽃 나무가 핑크빛 스카프를 흔들며 우리를 부르기에 그곳에 다 모여 벚꽃과 인사를 나누었다. 내리막길을 따라 여러 종류의 식물들을 감상하면 잉어들이 노니는 연못에 이른다. 잉어들과 입을 벙긋하며 담소를 나눈 뒤, 꽃향기 짙은 나무를 따라 걸었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따가운 햇빛을 가리기 위해 큰 양산 아래 모여서 선배가 준비한 음료수와 때마침 당기는 단 음식을 입에 넣고 오손도손 담소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영락없는 20대 아가씨가 되었다. 화창한 봄날의 한순간이기는 했지만.



봄 나들이로 Chanticleer Garden에 모인 필라델피아 지회 동창들

호치민 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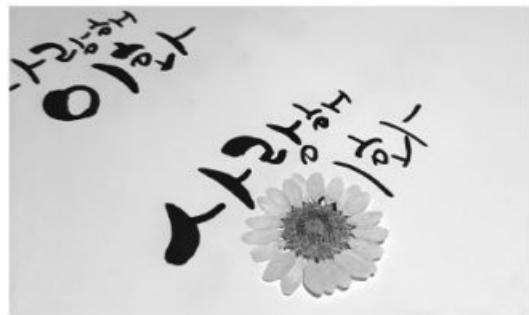
회장__원귀정(영문 89)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 계획 논의

코로나19로 인해 한창 심각했던 규제가 조금씩 풀리고 일상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는 요즘, 이화 호치민 지회도 대면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5월부터는 골프, 캘리그래피, 꽃꽂이, 볼링 등 취미가 맞는 동창들을 중심으로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여 끈끈한 동창의 정도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호치민 지회는 모교 및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난 5월 초, 동창회 간부들은 '글로벌 호프 베트남(Global Hope Vietnam)'이라는 단체를 방문하여 시설을 들러보고 후원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글로벌 호프 베트남'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 인정을 받은 NGO 단체로 지역 사회 어린이 교육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 중이다. 이 단체는 호치민 10군에 위치해 있는데 10군은 상대적으로 다른 군에 비해 경제적으로 빈곤한 취약 계층이 많이 거주



호치민 지회 동창들이 동아리 모임에서 쓴 캘리그래피

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 가정이라서 아동들이 방과후 길거리 혹은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편이다.

'글로벌 호프 베트남'은 이러한 아동이 방문하여 책을 읽고 교육받을 수 있는 나무도서관 사업을 진행 중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발전적인 활동이 어려웠던 상황이다. 호치민 지회는 아동이 볼 수 있는 다양한 베트남어 및 영어 책을 기부하고 센터가 지역 공부방으로서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이화의 이름으로 지역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동창회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졸업연도 순서로 계재

한진수(서양 49)·천동옥(서양 86) 동창

서양화과 1회 졸업생인 한진수(49) 동창과 딸인 천동옥(86) 동창 그리고 한 동창의 남편 천병근 작가와 천 동창의 딸 김현지씨의 'LA VOIX-그림과 그림자' 전이 5월 1일(일)부터 31일(화)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보혜미안갤러리에서 열렸다.



한진수(왼쪽) · 천동옥 동창

다. 3대가 함께하는 미술 전시는 국내 화단에서도 드문 경우여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경순(서양 50) 동창

5월 23일(월) 모교 서양화과 2회 졸업생인 이경순 동창이 국립중앙도서관 문학실에서 '이경순 작가 작품기증식'을 가졌다. 이경순 동창은 한국에서 교육받은 서양



이경순 동창

화가 1세대로,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여러 차례 입선하는 등 여성 작가의 위상을 높였다.

장혜원(피아노 62) 동창

'제20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 장혜원 동창이 선정되었다. 서종 예, 이화여대 음대 학장, 한국음악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장혜원 동창은 국내 최대 규모 학회인 한국피아노학회를 창립했으며, 음악에 대한 헌신과 열정으로 이원문화원을 건립했다. 장혜원 동창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3.1 문화상, 한국음악대상, 독일십자 공로훈장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피아노학회 이사장, 이화여대 명예교수,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다.



장혜원 동창

김소엽(김광자·영문 65) 동창

김소엽 동창이 지난 3월 이대동창 문인회 제28대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김 동창은 호서대에서 정년 퇴임 후 현재까지 대전대학교 어문 창작학부 석좌교수로 재임 중이며 한국기독교예총 총회장으로 30년 간을 기독문화 발전에 헌신해 왔다. 한국여성문학인회 자문위원, 국제펜한국본부 고문, 대한노인회 고문 등을 역임했으며, 윤동주문학상, 이화문학상, 한국문학상, 국제펜문학상, 기독문화대상, 백범애국문화상, 한국을빛낸인물대상 등을 수상했다.



김소엽 동창

이길형(섬예 65) 동창

이길형 동창은 4월 19일(화)부터 24 일(일)까지 북촌 한옥정에서 '이길형 자수 작품전'을 열었다. 팔순을 기념하여 학창 시절부터 팔순까지의 작품들을 모은 그녀의 첫 전시로, 다양한 생활 용품 및 소품들과



이길형 동창

추상에서 풍경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쉬지 않고 바느질과 함께한 여든 인생의 예술흔을 담은 시간들을 엿볼 수 있는 전시였다.

김화숙(의학 71) 동창

김화내과의원 원장 김화숙 동창이 5월 21일(토) 열린 '제56차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 정기총회 및 학술심포지엄'에서 '자랑스런 이화의인 박에스더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런 이화의인 박에스더상'은 조선 여성을 일깨우며 도전과 성취, 봉사의 삶을 살았던 박에스더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7년 제정됐다.



김화숙 동창

양수화(종음 71) 동창

3월 12일(토) 국립극장에서 열린 '2022 국립오페라단 창단 60주년 기념 대한민국 오페라 어워즈'에서 양수화 동창이 단장으로 있는 글로리아오페라단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글로리아오페라단은 1991년 창단 이후 30년 동안 총 32개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으며, 특히 한국 창작 오페라 <춘향전>을 1995년 일본 도쿄,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 기간 공연, 2004년 프랑스 파리에서 공연하여 큰 호평을 받았다. 한편 오페라 어워즈 대상 축하 공연으로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를 6월 17일(금)부터 19일(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하였다.



양수화 동창

한인영(사복 72) 동창

한인영 동창이 3월 18일(금) 국제 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신건강교육을 주제로 열린 워크숍은 즘을



한인영 동창

통한 영상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사회복지 교육자와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인영 동창은 모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은퇴한 이후에도 저개발국가의 사회복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애써왔으며 국제사회복지교육분과 공동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배경화(화학 74) 동창

배경화 동창이 2021년 11월 15일(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2호 안동소주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배경화 동창

안진희(관현 76) 동창

이화 ALPS(여성 최고 지도자 과정) 25대 동창회장인 안진희 동창이 4월 21일(목) 사애리시선교상을 수상하였다. 안진희 동창은 대천 서지방회 구치교회 30주년 기념 예배당 건축에 크게 헌신(2억 이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총 10개 교회를 봉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6월 2일(목) 국제 Soroptimist 한국협회 차기 총재로 선출되었다.



안진희 동창

윤숙경(간호 76) 동창

3월 25일(금)부터 4월 3일(일)까지 호주 멜버른 MAS갤러리에서 KAAM(Korean Artist Association Melbourne) 14회 전시회를 가졌다.



윤숙경 동창

이미연(동양 76) 동창

이미연 동창이 3월 4일(금)부터 17일(목)까지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에 위치한 갤러리 내일에서 개인전 'MIYEUN YI'를, 6월 2일(목)부터 15일(수)까지 전남 목포시 성옥



이미연 동창

기념관 별관 갤러리에서 초대전 'Closer 다가가다' 전을 열었다. 이미연 작가는 종이의 붙이기와 뜯어내는 작업으로 지면 위에 생동감을 주며, 한지의 물성을 이용하여 작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고보혜(영교 77) 동창

2021년 1월, 한림야간학교 임기제 제10대 교장에 선출된 고보혜 동창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재난 안전지도사 1급 자격증'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0여 명 학생이 생애 처음으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게 하였다. 37년간 교직에 몸담은 고보혜 동창은 2014년 녹조근조훈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고보혜 동창

김매자(의학 77) 동창

김매자 동창이 부이사장이자 내과 1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혜명심 의료재단 울산병원이 지난 2월 22일(화) 증개축을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김매자 동창은 1995년 200병상 규모의 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을 개원한 데 이어 이번에 아들인 임성현 이사장과 함께 증개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울산병원을 울산의 중견 종합병원으로 거듭나게 했다.



김매자 동창

장영란(섬예 77) 동창

5월 20일(금)부터 6월 2일(목)까지 한국공예 디자인 문예 진흥원 주체 공예주간 특별 행사로 당진 문화예술의 전당 전관에서 5개 분과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였다. 또한 장영란 동창은 사단법인 한국공예 가협회 제24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2022년 1월부터 3년간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다.



장영란 동창

조기주(서양 79) 동창

원으로 상징되는 '자궁'이나 '생명'과 같은 여성적 이슈를 시각화 시키는 작가 조기주 동창이 'The Stains of Life 2022'라는 제목으로 4월 19일(화)부터 5월 11일(수)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JnM 갤러리 개관 기념전에서 35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조기주 동창

함영림(피아노 80) 동창

모교 음대 피아노과 교수 함영림(피아노 80) 동창의 문하생으로 구성된 예림회가 6월 27일(월)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 번째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주회에는 고은빈(14)·권혜인(07)·김세연(04)·김인(대학원 21)·박안나(11)·신지혜(07)·이아람(01)·최수은(06)·최호정(06)·홍상희(05) 동창(가나다순, 모두 피아노과)이 참여하였다. 매 연주마다 다채롭고 완성도 높은 피아노 앙상블을 보여준 예림회는 이번 연주회에서도 사제 간의 정과 선후배 간의 교감을 아름다운 연주로 들려주었다.



함영림 동창

김정희(사회 82) 동창

김정희 동창이 상임이사로 있는 가배울은 기후정의 실천, 토종 살리기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가배울은 자체 쇼핑몰과 네이버 스토어, 카카오 채널을 열고 토종 밀키트를 판매하고 있으며, 연잎밥 등 명절 선물도 취급한다. 네이버, 카카오에서 '가배울'을 입력하면 된다.



김혜연 동창

김혜연(가관 84) 동창

제주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김혜연 동창이 개발한 TSD Mindful Self Coaching 교육프로그램이 국제코칭연맹(ICF)으로부터

코칭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았다. 국내 대학 교수 가 자체 국제코치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ICF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혜연 동창은 2000년대 이후 코칭 교육과 서비스 확산 및 역량 강화에 힘써 왔다.

봉지희(섬예 85) 동창

봉지희 동창이 3월 15일(화) 연성대 패션산업디자인과의 개교기념일 행사에서 30년 근속 표창장을 받았다. 봉지희 동창의 꾸준한 작업 활동과 열정적인 사랑으로 제자들을 양성하는 모습은 교육자의 길을 가고 있는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봉지희 동창

신미선(서양 85) 동창

신미선 동창이 사단법인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제11대 부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는 1997년 설립되어 전업미술가들의 사회 문화적 위상과 권익증대를 위해 전국 지부 산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형 전문 미술작가들의 단체이다.



신미선 동창

조은정(서양 85) 동창

미술사학자이자 미술평론가로 활동하는 고려대학교 초빙 교수 조은정 동창이 5월 29일(일) 국내 유수의 아트페어 중 하나인 '조형아트페어' 강연 프로그램에 초대되어 '가상세계 시대의 조각적 리얼의 문제'에 대해 강의하였다. 조 동창은 메타버스에서 실존하는 인간인 아바타와 현실의 인격성 문제, 입체라는 조형언어의 현실에서의 법칙이 가상공간에서도 유효한지 모색했다.



조은정 동창

최승애(조소 85) 동창

4월 21일(목)부터 5월 10일(화)까지 최승애 동창의 조각 초대전이 금보성아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최승애 동창

김애란(서양 86) 동창

4월 8일(금)부터 20일(수)까지 서울 혜화동 혜화아트센터에서 기획 초대전을 가졌다. 22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는 '꽃을 뿜내다'라는 제목인데, 추운 겨울을 지나 다시 맞이하는 따스한 봄을 마중하는 의미로, 아름다고 화사한 봄꽃들을 작품 속에 담아 인생의 찬란함을 가시화하였다.



김애란 동창

백다임(서양 86) 동창

서울 안국동에 소재한 사이아트 스페이스에서 5월 3일(화)부터 15일(일)까지 개인전을 가졌다. '직-면(Encounter)'을 주제로 한 전시에서 백다임 동창은 잘려진 듯한 강한 평면들을 마주치게 하고, 이를 통해 예기치 않게 만들어진 형상과 색채를 담아냄으로써 내 안의 생명력에 집중하고, 내면에 직면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작품을 선보였다.



백다임 동창

송은주(서양 86) 동창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교회에서 3월 26일(토)부터 4월 20일(수)까지 'Sky Aesthetics(하늘미학)' 고난·부활절기념 특별기획전을 진행하였다. 같은 주제로 1층 새문안아트갤러리에서는 회화, 오브제 작품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경사로 램프 구간에서는 영상 설치 작업이 동시에 전시되었다. 'Sky Aesthetics(하늘미학)'은 창세기 1장 8절



송은주 동창

의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김용연(생명 87) 동창

김용연 동창이 4월 21일(목) 제55회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정부포상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포상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포상이다. 김용연 동창은 현재 국립암센터 연구부소장(암전이연구과, 희귀·소아암연구과 최고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김용연 동창

김혜자(서양 87) 동창

2022년 Pro Biennale di Venezia(베니스 비엔날레의 전시관)에 참가 작가로 초대되었다. 5월 13일(금)부터 17일(화)까지 스풀레토파빌리온에서 미술 평론가이자 수필가인 살보 누그네스(Salvo Nugnes)가 기획한 국제 전시회 프로 비엔날레와 함께하는 공식 일정이다.



김혜자 동창

박신숙(서양 87) 동창

박신숙 동창의 개인전이 삼성동에 위치한 갤러리 다온에서 5월 17일(화)부터 27일(금)까지 '나무의 노래(Beyond-Sense&Sensibility)'라는 주제로 열렸다. 전시회에서 박 동창은 관념 속 나무를 소재로 이성과 감성의 경계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을 화면에 담아냈다. 박신숙 동창은 9월에는 뉴욕 맨하튼에서 열리는 Art on paper 아트페어와 10월과 11월에는 Aaf Battersea, Aaf Singapore 아트페어, 12월에는 Miami 아트페어에 참여할 예정이다.



박신숙 동창

박종애(물리 87) 동창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상무 박종애 동창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산학협력교수로 임용되었다. 박종애 동창은 비침습 생체의 혈당신호를 Raman방식으로 세계 최초로 직접 측정에 성공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혈압 측정앱의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박종애 동창

박향숙(섬예 87)·윤혜정(섬예 87)·이지숙(섬예 87) 동창
박향숙·윤혜정·이지숙 3인의 동기 동창이 양양에 위치한 갤러리 카페 '물치에'에서 5월 5일(목)부터 6월 4일(토)까지 '봄날 in 양양' 자수 전시를 하였다.



박향숙 동창

윤경미(서양 87) 동창

4월 19일(화)부터 5월 29일(일)까지 이대서울병원 스페이스비트에서 윤경미 동창의 기획초대전이 열렸다. 'Dots Towards Infinity' 가 주제인 이 전시에서 점(dots)을 기조로 한 추상회화를 선보였다. 이번이 윤경미 동창의 10회 개인전이다.



윤경미 동창

윤선홍(동양 88) 동창

2월 28일(월)부터 3월 30일(수)까지 서울시 금천구 이랜드월드에서 12기 이랜드 문화재단 선정 작가전인 '우리들의 이야기'를 열었다. 윤선홍 작가는 여러 겹의 두꺼운 장지 위에 스크래치를 내며 담담히 작가의 시간을 채색하고, 외부가 아닌 내부로 향하는 시선으로 일상 속 관계를 꽃과 식물들에 투영하여 기록하고 있다.



윤선홍 동창

호해란(조소 88) 동창

5월 3일(화)부터 15일(일)까지 호해란 동창의 개인전이 헤이리 갤러리 파랑에서 '꽃·집'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호해란 동창

윤순란(섬예 89) 동창

모교 조형예술대학 섬유예술과 교수로 재직 중인 윤순란 동창이 4월 20일(수)부터 25일(월)까지 갤러리 홈에서 '지워진 얼굴'을 주제로 개인전을 하였다. 이번 섬유 조형 작품은 사라진 것, 기억되지 못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처럼 되살아나는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윤순란 동창

이귀영(서양 89) 동창

이귀영 동창이 예화랑 기획 '연, 이어지다' 전에 초대되었다. 이 전시는 5월 26일(목)부터 6월 18일(토)까지 진행되었으며, 최초로 미국 풍경을 그린 조선인 청운 강진희를 기념하는 기획전이다.



이귀영 동창

이상미(서양 89) 동창

서울 LP갤러리에서 5월 4일(수)부터 16일(월)까지 개인전을 가졌다. 이상미 동창은 여러 색상의 물감을 자유로이 겹치고 쌓아가며 또 다른 색의 공간을 만들어 왔다. 이 동창의 작품은 화면 안에서 색채들이 형상 같기도 하고, 바람 같기도 한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해석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상미 동창

정인숙(서양 89) 동창

2월 23일(수)부터 3월 8일(화)까지 서울 유나이티드

갤러리에서 초대전 '자화상-자화자찬전'을 가졌다. 전시에서는 청년 작가들과 협업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도 함께 선보였다. 정인숙 동창은 2021 런던 사치갤러리에서 열린 START ART FAIR에

한국 대표로 참가했으며, 국내외에서 활발한 행보를 보이는 작가이다.

김길숙(서양 90) 동창

김길숙 동창의 10회 개인전이 5월 28일(토)부터 6월 3일(금)까지 아산 병원갤러리에서 열렸다. '충충' 이란 전시명은 켜켜이 쌓이는 물감과 시간이 필요한 작업의 방식을 일컫는 동시에 도시의 구조를 의미한다. 김 동창은 도시 구조와 형상을 화면에 옮기면서 시간과 함께 공간이 왜곡되고 기억의 편의에 의해 바뀌는 과정을 작품으로 선보였다.

조수경(서양 90) 동창

4월 27일(수)부터 5월 3일(화)까지 서울 인사동 소재 갤러리is에서 다섯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너랑 놀아주려 왔지'로, 매화꽃과 새들, 기와집, 까치와 호랑이를 동화처럼 천진하며 재미있게 그렸다. 심리치료 공부를 한 조수경 동창은 바쁜 일상과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현대인에게 위로와 쉼을 주는 작품을 선보였다.

김애주(장미/공간디자인전공 91) 동창

2021년 '올해의 이화인' 김애주 동창이 3월 25일(금) 개최된 2022년 건설 기술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애주 동창은 20년간 완성도 높은 건축물 디자인 설계 및 연구 성과를 학



정인숙 동창

회 등에 공유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술자문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성 건설기술인의 기술력 향상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였다. 현재 (주)범씨엠건축사 사무소 이사이다.



김애주 동창

윤수미(무용 91) 동창

(사)한국춤협회 제6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윤수미 동창은 4월 17일(일)부터 29일(금)까지 13일간 2022년 제36회 한국무용제전을 대학로예술극장과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센터 코튼홀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윤수미 동창

김경원(동양 92) 동창

5월 23일(월)부터 6월 4일(토)까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북한강갤러리에서 개인전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인물' 전을 열었다. 김 동창은 수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인 부모와 자녀를 통해 실제의 인물과 내안의 인물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미적 작업을 제시하고 있다.



조수경 동창

김수진(체육 92) 동창

김수진 동창이 제5대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총동문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투표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김수진 동창은 MBA 06학번 1기로, 현재 MBA골프회장, 이화우먼스 골



김수진 동창

프클럽회장직을 맡고 있다. 김수진 동창은 동창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희준(약학 92) 동창

2월 27일(일)부터 5월 22일(일)까지 대학로 예스24

스테이지 3관에서 창작뮤지컬 〈The Stone〉(극본 이희준)을 공연하였다.



이희준 동창

정소연(서양 92) 동창

정소연 동창이 싱가폴 Raffles Hotel 소재 ART NOW 갤러리에서 4월 23일(토)부터 5월 22일(일)까지 이환권 작가와 2인전을 가졌다. 이 전시에서 정소연 동창은 '벽지 그림' 시리즈를 전시하였다. 다른 작가라 불리는 정소연 동창은 회화, 입체, 설치, 비디오, 뉴미디어 미술 등을 섭렵하며 사회와 미술계의 변화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 태생적인 성실함을 보여주는 작가이다.



정소연 동창

김향(무용 93) 동창

한국무용가 김향 동창은 4월 14일(목)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김향의 춤 동무(鑿舞)〉를 공연했다. 자신의 이름을 건 이 공연은 1부 전통 및 신(新) 전통, 2부 모듬복과 춤의 융합 창작춤을 선보였다.



김향 동창

유수진(독문 94) 동창

유수진 동창의 시 「폭포」가 제10회 제주4·3평화문학상에 시 부문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상금은 2,000만 원이며, 시상식은 3월 25일(금)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개최되었다. 유수진 동창은 지난해 전북일보 신춘문예 당선(시) 및 제6회 경북 일보 문학대전 동상(소설), 2015년 시문학 신인우수 작품(시) 등을 수상했다.

정선주(서양 94) 동창

4월 12일(화)부터 23일(토)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파비욘드갤러리에서 초대 개인전을 가졌다. '중첩

(Superposition)'을 주제로 꾸준히 작업해 온 정선주 동창은 유리 너머의 풍경, 유리에 비친 풍경의 중첩을 '멈춤'이라는 새로운 프레임 안에서 해석하며, 동시대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지금의 우리, 납작해진 현재를 읽어내려가고 있다.



정선주 동창

부원희(서양 96) 동창

부원희 동창이 레인보우큐브의 '처음의 개인전' 6회 공모에 선정되어 5월 20일(금)부터 6월 5일(일)까지 동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부엌과 거실과 식탁과 책상과'라는 제목의 전시로,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재료와 상황을 작품화하고, 삶과 예술의 관계를 묻고 있다.



부원희 동창

이남준(의학 96) 동창

서울대병원 간담췌외과에 재직 중인 이남준 동창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간이식학회 ILTS Annual Congress 2022'에 참석하였다.



이남준 동창

최지연(물리 97) 동창

한국기계연구원 광응용장비연구실장 최지연 동창이 한국공학한림원 일반회원에 선정되었다. 최지연 동창은 펌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유리기공 기술 개발 등 첨단 광공학 기술의 산업화에 이바지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최지연 동창

이말용(조소 98) 동창

5월 14일(토)부터 6월 11일(토)까지 이말용 동창의

초대 개인전이 ‘무명씨의 유목화’라는 주제로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 갤러리에서 개최됐다.

이은정(물리 99) 동창

이은정 동창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Concordia University Irvine의 Kinesiology 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8월부터 강의한다. 이은정 동창은 한국 기계연구원과 캐나다 캘거리 대학교 Department of Kinesiology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이은정 동창



이은정 동창

나 달의 은근한 빛, 혹은 다시 밝아오기 직전의 희미한 빛이지만 무엇도 숨기거나 가리지 않는 분명한 빛이다.



김주희 동창

손혜경(조소 03) 동창

5월 19일(목)부터 6월 30일(목)까지 손혜경 동창의 초대 개인전이 ‘숨기내기’라는 주제로 라운지사 이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손혜경 동창은 지난 4월 포항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작가 공모제인 ‘제18회 장두건 미술상’을 수상하였다.



손혜경 동창

신지혜(섬예 02) 동창

5월 16일(월)부터 30일(월)까지 갤러리 헬렌A에서 ‘선의 직조 조형’이라는 개인전을 열었다. 육면체의 와이어 틀 위에 와이어의 선과 선을 가로지르는 직선의 섬유들로 공간을 만드는 입체적인 섬유 작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신지혜 동창

이소정(장미/공간디자인전공 02) 동창

이소정 동창이 올해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주요 전시 및 공공 미술 사업의 자문과 심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소정 동창은 현재 OBBA(Office for Beyond Boundaries Architecture) 대표이며,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겸임교수이다.



이소정 동창

안소현(조소 03) 동창

4월 12일(화)부터 5월 1일(일)까지 안소현 동창의 초대개인전이 갤러리 수애뇨에서 ‘멈춤의 자리’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안소현 동창

김혜림(장미/패션전공 04) 동창

패션디자인과 강사인 김혜림 동창이 4월 29일(금)부터 5월 5일(목)까지 미국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 초청 개인전 ‘결 GYOEL’을 가졌다. 이번 전시는 한국이라는 지역의 표상을 21세기 전세계가 공감하는 차별화된 패션디자인 작품으로 보여 주며 한국의 문화적 독창성을 알리는 전시였다.



김혜림 동창

김주희(동양 03) 동창

5월 1일(일)부터 15일(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갤러리 자작나무에서 초대 개인전 ‘푸른밤’을 열었다. ‘푸른밤’의 빛은 해질녘 흐릿하게 남은 빛이거

손서현(서양 06) 동창

손서현 동창은 평온하고 위안이 되는 공간을 그리며 흡사 가드닝을 하는 태도로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이다. 3월 31일(목)부터 4월 24일(일)까지 Choi Contemporary Art에서 ‘오아시스 Oasis’라는 제목으로 10회 개인전을 가졌다. 땅을 고르듯 캔버스에

배경색을 칠하고, 묘목을 심듯이 펜으로 식물을 그린다. 균형을 맞춰 식물들을 배열하고, 색을 입혀 생명을 주는 그의 작품은 현대인의 마음을 위로하는 전시라는 평가를 받았다.



손서현 동창

유영우(작곡 06) 동창

유영우 동창이 형가리·이탈리아에서 열린 SHE LIVES BUDAPEST PRIZE 국제 작곡 콩쿠르에서 3위를, 이탈리아 바를레타에서 열린 제32회 '젊은 음악가를 위한 국제 콩쿠르' 작곡 부문에서 1위를 수상하였다.



유영우 동창

안은선(섬예 07) 동창

3월 2일(수)부터 7일(월)까지 KCDF갤러리 제3 전시장에서 '펠트 그 부드러움, 초록빛'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였다. 펠트의 포근한 질감과 다양한 녹색 계열의 가는 양모들의 결합으로 만들어 낸 색면 추상과 같은 작품은 생명력과 따뜻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안은선 동창

장서영(조소 07) 동창

장서영 동창이 제9회 신도리코 작가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4월 16일(토)부터 6월 12일(일)까지 '스키드'라는 주제의 초대 개인전을 신도문화공간에서 열었다.



장서영 동창

김누리(섬예 08) 동창

5월 2일(월)부터 10일(화)까지 갤러리 지오타에서 'Borderlander' 전시를 개최하였다. 김누리 동창은

여성의 몸으로 임태와 출산의 과정을 겪은 후 자기 자신의 신체적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한 인간이 가지는 다채롭지만 강요된 역할들에 대하여 바느질과 드로잉, 섬유와, 알 등으로 섬세하면서도 날 것의 감성을 전달하였다.



김누리 동창

이지은(서양 12) 동창

ECA센터와 이대서울병원이 기획한 공모에 선정되어 4월 12일(화)부터 5월 22일(일)까지 이대서울 병원 아트큐브에서 개인전 'Slow City'를 가졌다. 'Slow City'는 도시의 삶에 녹아 있는 충위들을 회화라는 매체로 찬찬히 바라봄으로써 도시에 사는 삶이 여유 있고 깊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했다. 이 동창은 도시에 스며든 '삶의 정서'와 '공간-인간의 유기적 관계'를 찾아내어 자신만의 회화의 감촉으로 구현하는 사회적이고 주관적인 풍경화 시리즈를 지속해 오고 있다. 전시 작품 중 <무교동의 여름>은 이화의료원에 소장되었다.



이지은 동창

구유빈(서양 22) 동창

3월 10일(목)부터 27일(일)까지 CCA갤러리에서 '남은 순간', 4월 12일(화)부터 5월 22일(일)까지 이대서울병원에서 '그날의 잔여 물' 개인전을 가졌고, 4월 7일(목)부터 10일(일)까지 벡스코에서 열린 2022 BAMA 아트페어에 Sanji 갤러리 소속으로 참여하였다. 구유빈 동창은 일상 속 사물에서 비롯되는 추억을 상기하여 관람객 각자가 떠올리고자 하는 시간으로 회귀하고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다. 구유빈 동창은 '비전 이화' 수상자이기도 하다.



구유빈 동창

S Noble
SINCE 1999

VVIP 통합 프리미엄 매칭 서비스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에스노블

두 대통령家의 성혼을 이루어 낸
23년 경험의 프리미엄 매칭 노하우
엄정한 심사와 신원 인증을 거친 차별화된 회원 네트워크
Nobless 결혼을 이끌어 온 최고의 성혼율

이화여대 동창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1-7 패밀리빌딩 2F <http://www.snoble.com/>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S Noble



기존 후코이단의 20배 면역활성 확인!!
자연면역력의 최강자



안토시아닌-후코이단 나노복합체

CellMed®